

Research Center

2016년 10월 10일

# 투자전략 Daily

- 시황분석

US OK, IT OK!

- 계량분석

페어트레이딩(10월2주차)

- 중화권 증시 동향

부동산 규제책 강화에 홍콩H 약세 전환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유니트론텍 외 5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이마트 외 5종목

- 산업/기업분석

건자재, 기계, 화학, 엔씨소프트, KTH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캘린더

자산배분전략 | 노근환 ☎ 3276-6226  
투 자 전 략 | 박소연 ☎ 3276-6176  
시 황 분 석 | 김대준 ☎ 3276-6247  
계 량 분 석 | 안 혁 ☎ 3276-6272  
파 생 / E T F | 강승철 ☎ 3276-6181  
스 몰 캡 전 략 | 정훈석 ☎ 3276-6232  
이 머 징 마 켓 | 윤항진 ☎ 3276-6280  
중 국 시 장 | 최설화 ☎ 3276-6274  
경 제 분 석 | 박정우 ☎ 3276-6229  
채 권 분 석 | 오창섭 ☎ 3276-6174  
해 외 채 권 | 박승진 ☎ 3276-6560  
크 레 디 트 | 김기명 ☎ 3276-6206  
원 자 재 | 서태종 ☎ 3276-6184

true**friend** 한국투자 증권

#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 주요 증시 지표

유가증권	구 분		9/30(금)	10/4(화)	10/5(수)	10/6(목)	10/7(금)
	종합주가지수		2,043.63	2,054.86	2,053.00	2,065.30	2,053.80
	등락폭		-25.09	11.23	-1.86	12.3	-11.5
	등락종목	상승(상한)	169(1)	504(4)	347(2)	348(2)	199(2)
		하락(하한)	654(0)	300(0)	446(0)	448(0)	611(0)
	ADR		95.81	100.39	97.26	94.02	86.63
	이격도	10 일	99.90	100.26	100.03	100.49	99.91
		20 일	100.07	100.57	100.43	100.97	100.42
	투자심리		70	70	60	60	50
	거래량	(백만 주)	326	319	292	338	419
거래대금 (십억 원)		5,739	5,019	4,330	5,358	5,161	
코스닥	코스닥지수		681.21	685.88	685.44	684.33	675.9
	등락폭		-8.62	4.67	-0.44	-1.11	-8.43
	등락종목	상승(상한)	283(2)	737(2)	532(3)	542(3)	298(2)
		하락(하한)	821(0)	342(0)	540(0)	533(0)	797(0)
	ADR		98.59	99.28	99.23	99.08	97.88
	이격도	10 일	99.80	100.20	99.98	99.73	98.63
		20 일	100.81	101.34	101.17	100.95	99.73
	투자심리		70	70	60	50	40
	거래량	(백만 주)	681	533	587	641	697
		거래대금 (십억 원)	3,616	2,880	2,976	3,161	3,452

##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2,730.8	1,579.1	804.0	211.5	98.0	161.1	63.5	10.0	260.0	50.1
	매도	2,534.4	1,540.7	1,040.9	298.0	151.1	214.3	73.5	17.7	286.2	48.1
	순매수	196.4	38.5	-236.9	-86.5	-53.1	-53.3	-10.0	-7.7	-26.3	2.0
	10 월 누계	253.7	307.1	-584.4	-556.2	-26.1	-72.7	101.4	-22.3	-8.6	23.6
	16 년 누계	-5,038.3	10,088.3	-8,434.7	-2,695.4	681.4	-5,655.6	-897.5	-994.2	1,127.0	3,384.6
코스닥	매수	3,210.5	158.6	67.0	18.7	8.0	16.9	8.2	1.2	14.1	15.7
	매도	3,143.2	182.2	105.7	35.0	9.9	26.3	12.3	1.5	20.8	20.7
	순매수	67.3	-23.6	-38.7	-16.3	-1.9	-9.4	-4.1	-0.3	-6.7	-5.0
	10 월 누계	59.0	73.7	-110.9	-34.3	-2.6	-36.3	-14.4	-1.9	-21.4	-21.8
	16 년 누계	5,197.9	976.2	-4,251.7	-600.1	-276.1	-1,445.8	-627.6	-148.9	-1,153.4	-1,922.3

## US OK, IT OK!

2016년 Target KOSPI	2,180pt
12MF PER	10.27배
12MF PBR	0.95배
Yield Gap	8.4%p

- ▶ 11월 인상론의 약화: 시장은 통화정책 불확실성에서 자유로운 상황
- ▶ 양호한 미국 경기: 미국은 금리를 인상할 정도로 내수 경기가 양호
- ▶ 투자전략: 미국 경기, 수출 상황, 기업 실적 고려시 IT 비중확대 필요

### ■ 11월 인상론의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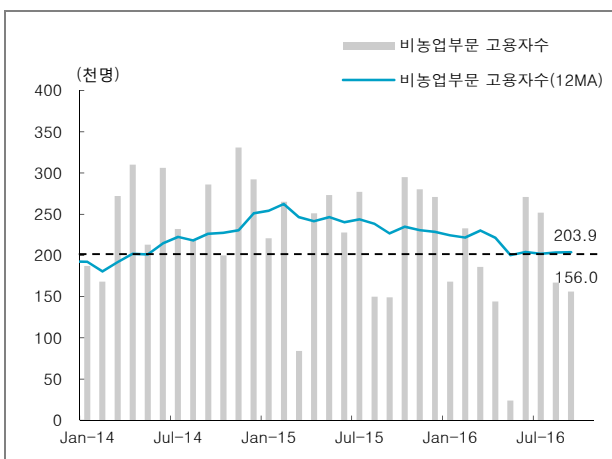
#### 시장 예상을 하회한 비농업부문 고용자수

지난 7일 미국 노동부는 9월 고용지표를 발표했다.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비농업 부문 고용자수는 예상치 17.2만명보다 감소한 15.6만명으로 나타났고, 최근 4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동 지표의 12개월 평균은 가까스로 20만명을 상회했다.

9월 실업률은 전월보다 0.1%p 상승한 5.0%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자연실업률 수준을 유지했다. 민간소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시간당 평균임금은 전년동기에 비해 2.6% 상승하며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 전월대비로도 (+) 변화율을 유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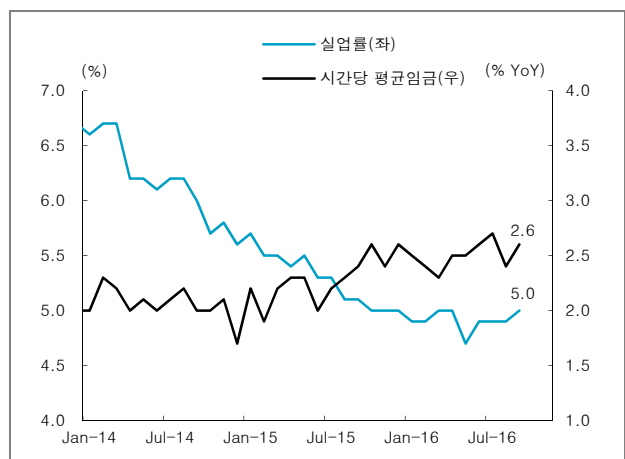
이번 고용지표를 보면, 눈에 띄게 향상된 항목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이에 지표 해석 과정에서 미국 경제에 대한 실망감이 변질 수 있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오히려 이번처럼 뚜렷미지근한 결과를 긍정적으로 반영할지도 모른다.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통화정책 정상화의 시점, 특히 11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덜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1] 미국 비농업부문 고용자수 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2] 미국 실업률과 평균임금 상승률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약화된 11월 금리 인상론

실제로 채권시장은 고용지표의 변화를 빠르게 반영했다. 현물시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1.72%로 전일보다 2bp 낮아졌다. 선물시장에서는 11월과 12월의 금리 인상 확률이 상반된 흐름을 나타냈다. 11월 인상 확률은 23.6%에서 17.1%로 하락한 반면, 12월 인상 확률은 64%로 상승했다. 그 중에서 25bp 인상 확률은 55%로 나타났다.

연준은 지난 점도표를 통해 연내 1회 금리 인상을 시사한 바 있다. 만약 11월이 정책 정상화의 시점이 아니라면, 주식시장은 12월 FOMC회의까지 두 달간 금리인상 리스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투자자들 역시 연준의 정책 불확실성보다 글로벌 경기나 기업 펀더멘털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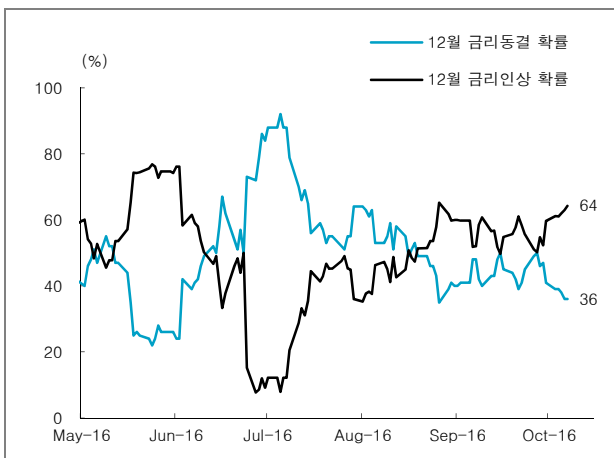
물론 이번주에 예정된 9월 FOMC 의사록 공개(13일)와 당시 회의에서 매파적 의견을 제시한 조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12일), 로젠그린 보스턴 연은 총재(14일)의 연설로 금리 인상 불안감이 다시 고조되고, 달러 강세 현상도 강해질 수 있다(한국시간 기준).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한국시간 15일 새벽 2시 30분에 예정된 보스턴 연은 컨퍼런스에서 옐런 연준의장이 금리 인상은 경제지표에 달렸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차 강조한다면 불안감은 다시 해소될 것이다. 지표에 의존적인 연준이 전혀 극적이지 않았던 9월 고용지표 결과를 토대로 금리 인상을 시도하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이번에 발표된 9월 고용지표는 연준의 금리 인상을 지지하기에 불충분하다. 따라서 연준은 금리 인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지표를 좀 더 확인하려 할 것이다. 그런데 11월 FOMC회의는 앞으로 3주 후에 열린다.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절대적 시간이 부족한 것이다. 결국 금리 인상 논의는 자연히 12월로 이연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주식시장은 12월까지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없는 단계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경기 흐름이나 기업 실적으로 시선을 이동할 필요가 있다.

[그림 3] 미국 12월 금리동결 및 인상 확률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4] 달러인덱스 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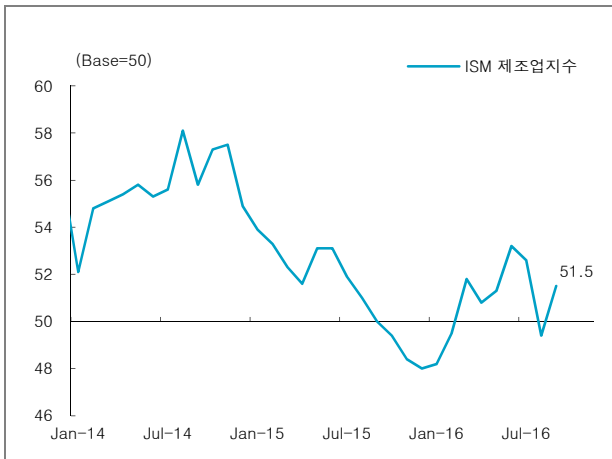
## ■ 양호한 미국 경기

### 미국의 경기심리는 개선

미국은 금리 인상을 시도할 정도로 내수 경기가 양호하다. 이는 ISM 제조업지수나 미시간대 소비심리지수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기업 심리를 대표하는 ISM 제조업지수를 보면 지난달 경기 확장을 의미하는 50선을 다시 상회했다. 세부적으로 신규주문, 생산, 고용 등이 개선됐다. 뿐만 아니라 재고 재축적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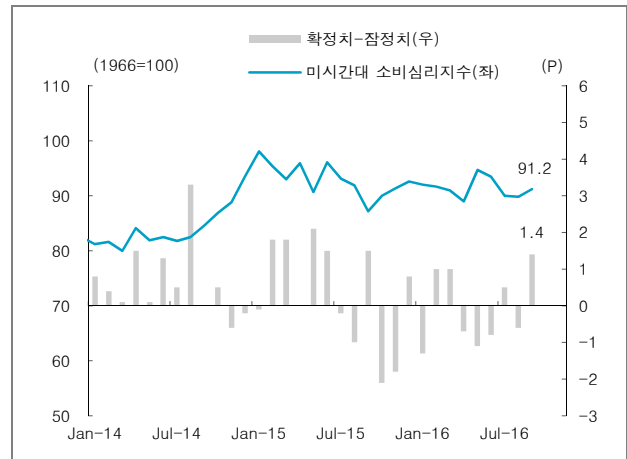
미시간대 소비심리지수를 봐도 소비에 대한 인식이 크게 나쁘지 않다. 일례로 최근의 소비심리지수 확정치는 먼저 발표된 잠정치(우)를 크게 상회했다. 한편 대선 불확실성으로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은 다소 악화됐으나 확정치는 3개월 연속 상향되고 있다. 더불어 미래 기대지수도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5] ISM 제조업지수 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6] 미시간대 소비심리지수 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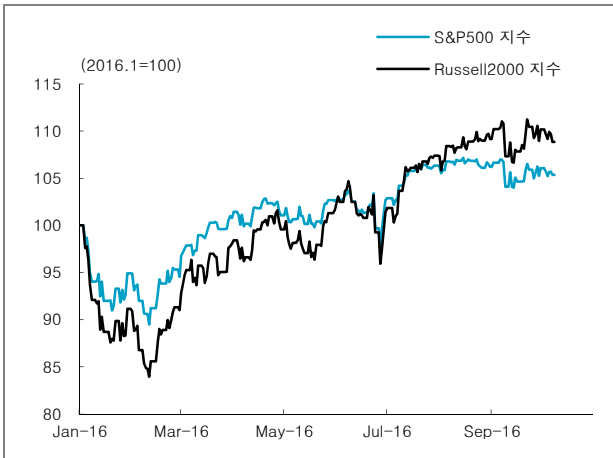
### 주가로 확인한 내수 경기

미국의 내수 경기가 좋다는 점은 주식시장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특히, S&P500 지수보다 Russell2000 지수의 상대적 강세가 이를 방증한다. 이러한 해석은 각 지수에 편입된 기업의 특성에 근거한다. 일례로 S&P500 지수에 편입된 기업들은 해외매출 비중이 높고, Russell2000 지수에 속한 기업들은 미국내 매출이 대부분이다.

먼저 S&P500 지수를 보자. 익히 알다시피 동 지수에는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가 속해 있다. 그런데 이들의 미국 매출 비중은 50%에도 미치지 못한다(2015회계년도 기준). 동 지수의 시가총액 상위 10위 중에서 미국내 매출 비중이 70%를 넘는 기업은 제이피모간에 불과하다. 시가총액 상위 100위로 범위를 넓혀도 미국 내수 기업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은 전체의 39%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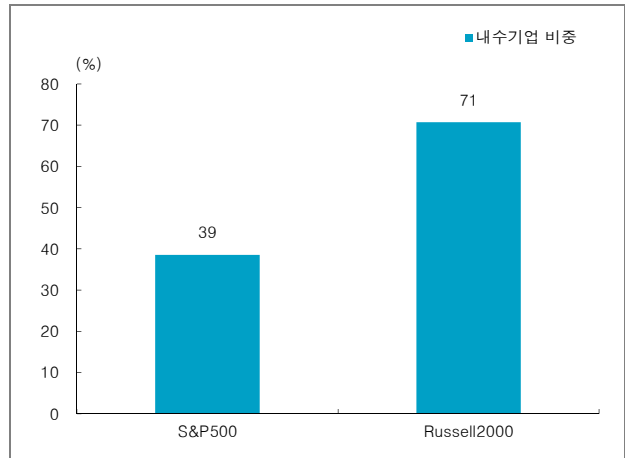
반면 Russell2000 지수는 전자와 다르다. 파슬리 에너지, 타일러 테크놀로지스 등 시가총액 1~2위 기업들의 미국내 매출 비중은 100%에 이른다. 시가총액 상위 10위 중에서는 7개 기업이 70% 이상의 내수 비중을 나타낸다. S&P500과 동일하게 시가총액 100위로 범위를 늘리면 내수 기업 비중은 71%로 확인된다.

[그림 7] S&P500 지수와 Russell2000 지수 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8] 주요 지수별 내수기업 비중



주: 내수기업은 미국내 매출 70% 이상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 투자전략: IT 비중확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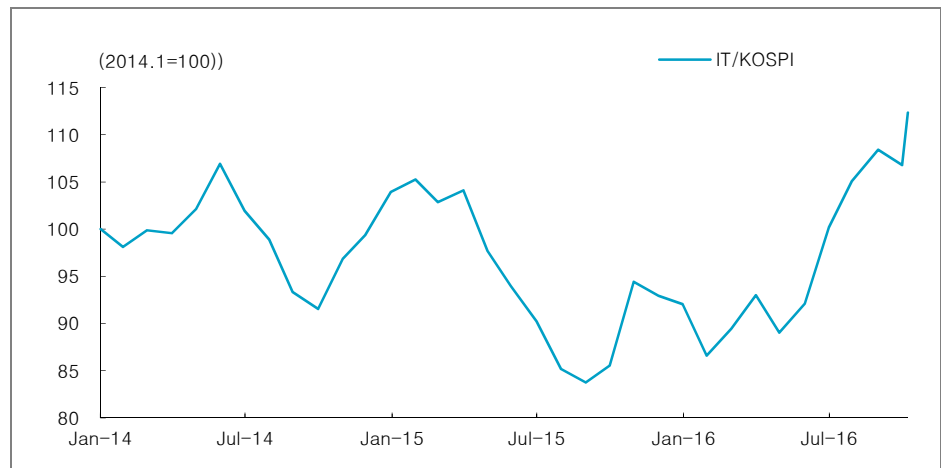
### IT의 상대적 강세 지속

9월 고용지표 결과로 인해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은 12월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분간 주식 투자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해도 무방한 상황이다. 여기에서 미국의 내수 경기 회복까지 고려한다면, 시클리컬 업종에 대해 비중확대 관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미국과 연관성이 높은 IT 업종을 가장 주목해야 한다.

최근 유가증권시장에서는 IT 업종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IT의 강세 흐름이 연말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이 있더라도 여전히 IT 업종에 대해서는 비중확대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특히, 동 업종의 대형주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미국 경기와 기업 실적이 해당 기업의 주가를 지지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 9] KOSPI와 IT지수의 상대강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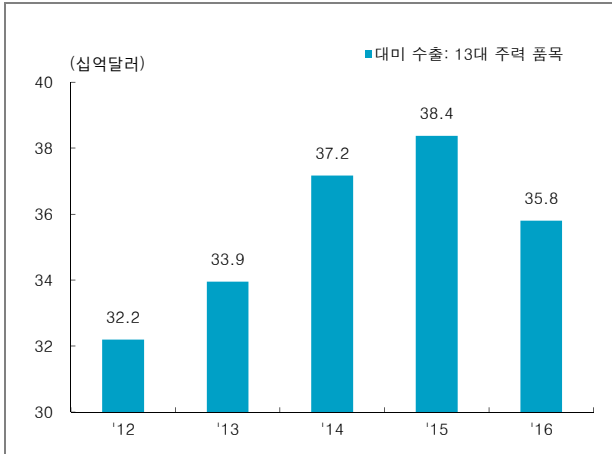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한국투자증권

## 대미 IT 수출의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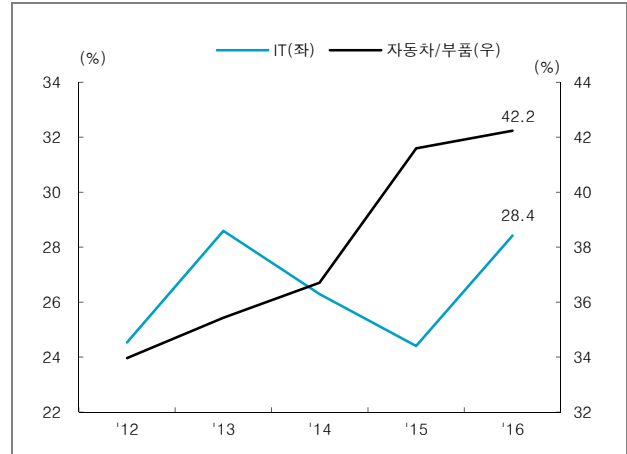
우선 미국의 경기 회복이 IT 제품 수요로 연결될 것이다. 이는 수출지표에서 확인된다. 올해 8월까지 13대 주요 품목의 대미 수출은 전년대비 6.7% 감소한 358억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핸드폰을 중심으로 IT의 올해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8.6% 증가한 101.7억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주요 품목에서 IT 비중은 작년 24.4%에서 현재 28.4%로 늘었다. 대미 1위 수출품인 자동차/부품의 비중 변화와 대조적이다.

[그림 10] 대미 13대 수출 품목의 규모



주: 매년 8월 누계 기준  
자료: KITA, 한국투자증권

[그림 11] 대미 13대 수출 품목: IT와 자동차/부품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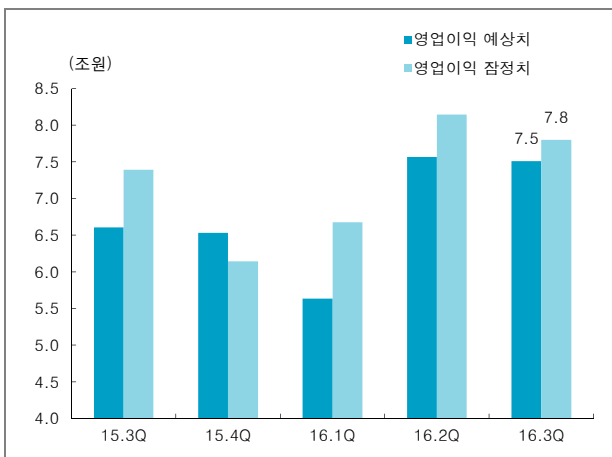


주: IT는 가전, 핸드폰, 컴퓨터,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합계  
자료: KITA, 한국투자증권

## IT의 실적 개선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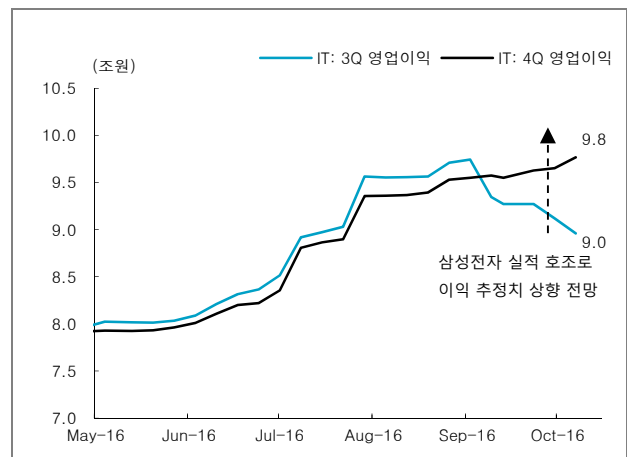
3분기 실적도 IT업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지난주 3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가 이익모멘텀을 보강할 것이기 때문이다. IT 업종의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9월부터 하향 조정됐지만, 삼성전자의 이익 전망치를 7.5조원에서 7.8조원으로 대체하면 기존의 하향 추세는 멈추게 된다. 4분기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측면에서 IT 업종에 대한 눈높이를 낮출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다.

[그림 12] 삼성전자의 분기별 3Q 실적



자료: Quantiwise, 한국투자증권

[그림 13] IT 업종의 3Q, 4Q 영업이익 컨센서스



주: 목표주가 3개 이상 IT기업의 이익 컨센서스 합계  
자료: Quantiwise, 한국투자증권

## ■ Appendix 1 : 전주 동향 및 기업실적 추정치 변경

코스피는 전 주말(30일) 대비 약 0.5% 상승해 2,053.80pt에서 마감했다. 도이치 뱅크로 인한 우려가 잦아들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되었지만, 주중 ECB의 테이퍼링 조짐, 연준의 매파적 발언, ‘하드 브렉시트’ 가능성 고조 등의 대외 악재들로 인해 변동폭이 컸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지배구조 개편 기대가 지수를 견인했다. 달러 강세가 나타나며 원/달러 환율은 약 14.2원 상승했고, 국고채 3년물은 7.9bp 가까이 상승했다.

거래소 업종 기준 전기전자(+5.7%), 유통업(+4.0%) 외 몇개 업종만 강세를 보인 가운데, 철강금속(-2.2%), 화학(-2.4%)과 같은 소재주가 하락했고, 의약품(-9.3%), 전기가스(-3.7%), 운수창고(-2.3%)가 급락했다. 의약품의 경우, 한미약품(-16.7%)이 기술 개발 이전 반환 소식에 큰 폭으로 하락했고, 전기가스는 한전(-4.4%)에 대한 전기 인하 요금 압박으로 약세를 보였다. 한편 DRAM가격이 상승하면서 반도체 업황이 꾸준히 개선되면서 삼성전자(+6.8%), SK하이닉스(+5.0%)를 필두로 전기전자가 오른 모습이다.

〈표〉 업종별 주간 EPS 변화율 및 등락률 변화

Name	수익률 (%)			12MF EPS CHANGE (%)		12MF Valuation (X)	
	1W	1M	YTD	1W	1M	PER	PBR
전체 기업	-0.05	0.10	6.54	0.30	1.17	10.38	0.96
에너지	-2.12	5.44	13.67	0.00	0.32	7.10	0.86
소재	-0.92	-1.10	4.78	0.44	1.26	8.70	0.72
화학	-0.95	0.26	-4.29	0.28	0.52	7.96	0.92
비철금속	-3.08	-2.53	4.61	-0.07	4.16	10.64	1.13
철강	-0.38	-3.37	25.95	1.35	2.69	9.26	0.45
산업재	1.01	0.74	6.30	-0.19	2.43	13.36	1.03
자본재	1.71	1.10	8.65	-0.12	2.35	13.17	0.98
국방/항공	2.17	-3.94	6.35	0.61	1.01	19.72	2.58
건설	0.21	3.53	16.38	-0.52	1.54	8.48	0.78
기계	0.40	-2.96	16.77	-0.03	2.71	12.39	0.92
조선	2.52	2.47	33.16	0.65	6.73	11.64	0.63
상업서비스	-2.41	-2.08	-10.12	0.00	1.78	21.07	2.31
운송	-3.58	-1.37	-5.10	-0.68	3.05	13.53	1.26
경기소비재	-1.41	-0.55	-5.25	-0.08	0.64	10.38	1.04
자동차/부품	-2.21	-1.67	-0.62	-0.13	0.37	6.72	0.69
내구소비재/의류	-0.56	1.35	-4.45	0.14	1.78	20.38	3.05
화장품	-1.02	-1.83	-7.54	0.07	1.57	25.06	4.66
호텔/레저	-3.71	-4.86	-10.93	-0.07	0.41	17.33	2.27
미디어	-0.38	1.72	-16.66	-0.12	0.62	18.43	1.86
유통	0.36	-0.02	-11.26	-0.11	0.55	13.19	0.74
필수소비재	-3.12	1.29	-9.19	-0.14	0.23	15.37	1.51
음식료/담배	-3.29	1.26	-8.96	-0.15	0.19	15.34	1.53
의료	-7.66	-4.92	-0.36	-0.48	-0.29	34.31	3.81
제약/바이오	-8.33	-5.64	-1.12	-0.55	-0.63	36.03	3.80
금융	-0.30	-1.40	1.69	0.34	0.53	8.54	0.58
은행	0.08	-1.37	9.46	0.71	1.15	6.71	0.44
증권	-1.37	-3.54	-7.71	-0.42	-0.13	9.40	0.64
보험	-0.34	-0.88	-6.62	0.01	-0.42	11.03	0.77
IT	3.25	2.22	21.11	0.95	2.19	10.69	1.20
소프트웨어	-1.36	2.37	3.61	-0.30	1.54	21.78	2.80
하드웨어	-0.53	-3.01	-5.15	-0.84	2.70	12.21	1.05
반도체	5.34	3.80	33.20	1.21	2.12	9.38	1.13
디스플레이	0.55	-0.88	15.90	1.37	7.61	11.84	1.01
통신서비스	-1.95	-0.24	6.09	-0.19	-0.27	11.82	0.94
유틸리티	-4.67	-7.00	1.79	-0.09	-0.39	4.95	0.51

주 : 표에 제시된 업종별 수익률은 10월 6일 종가 기준, 추정치는 그 직전일 종가 기준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 ■ Appendix 2 : 국내 펀드 시장 동향

지난 주 전 펀드군은 순유출세를 이어나가, 전체적으로 주식형 펀드에 대한 환매가 재개된 모습이다. 지수가 대형주 위주의 상승세를 이어가며 중소형주식형군의 순유출이 탐지 되었다. 또한 시가총액 상위에 투자하는 펀드들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으며, 지난주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기대에 삼성 그룹 테마의 펀드도 함께 순유입을 기록 중이다.

〈표〉 유형별 국내 주식형 펀드 설정액

	설정액(억원)				설정액 증감(억원)			
	일반 주식형	중소형주식형	인덱스주식형	배당주식형	일반 주식형	중소형주식형	인덱스주식형	배당주식형
2016-07-22	225,289	36,460	74,026	53,233	-3,037	-552	-1,079	-707
2016-07-29	223,613	36,236	72,684	52,983	-1,676	-224	-1,342	-250
2016-08-05	222,171	36,176	71,942	52,837	-1,441	-60	-742	-147
2016-08-12	218,888	35,911	70,787	52,476	-3,284	-265	-1,155	-361
2016-08-19	217,026	35,672	70,198	52,172	-1,862	-239	-589	-304
2016-08-26	214,897	35,452	69,269	51,842	-2,128	-220	-929	-329
2016-09-02	213,313	35,151	68,117	51,805	-1,584	-301	-1,152	-37
2016-09-09	211,075	34,814	68,131	51,648	-2,237	-337	14	-157
2016-09-13	210,582	34,713	67,676	51,573	-493	-101	-455	-75
2016-09-23	210,655	34,755	66,921	51,822	73	42	-755	249
2016-09-30	208,881	34,680	66,652	51,772	-1,774	-76	-269	-50
2016-10-06	207,778	34,571	65,896	51,719	-1,103	-109	-755	-53

자료: 펀드닥터, 한국투자증권

〈표〉 주요 설정액 증감 펀드

(단위: 억원)

회사명	펀드명	투자지역	증감액	설정원본
설정액 증가 삼성자산운용	삼성KODEX2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국내	409	46,072
제이피모간자산운용	JP모간러시아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해외	75	3,247
삼성자산운용	삼성KODEX삼성그룹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국내	56	7,542
KB자산운용	KB중국본토A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해외	55	3,071
KB자산운용	KB중국본토A주증권자투자신탁(주식)(운용)	해외	55	2,667
키움투자자산운용	키움KOSF200상장지수증권투자신탁(주식)	국내	54	4,786
신영자산운용	신영밸류고배당증권모투자신탁(주식)	국내	29	29,439
메리츠자산운용	메리츠코리아증권투자신탁 1[주식]종류C2	국내	29	2,902
신영자산운용	신영밸류고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운용	국내	28	29,386
교보악사자산운용	교보악사파워K2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국내	25	4,345
설정액 감소 KB자산운용	KBSTAR2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국내	-407	5,608
삼성자산운용	삼성KODEX200가치저변동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국내	-108	743
삼성자산운용	삼성코리아소수정예증권모투자신탁[주식]	국내	-57	470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TIGER미디어컨텐츠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국내	-38	137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TIGER헬스케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국내	-35	1,689
메리츠자산운용	메리츠코리아증권투자신탁 1[주식]종류C1	국내	-35	670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신한BNPP봉쥬르차이나증권자투자신탁 2[주식](종류)	해외	-33	6,354
KB자산운용	KB밸류포커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국내	-31	18,882

주: 2016년 10월 5일 기준, 설정원본 1천억원 이상 공모 주식형 펀드 대상, 같은 펀드 내 자금 유출입 규모가 가장 큰 클래스만 포함  
다만 설정일이 2014년 이후일 경우 설정원본이 1천억원 이하라도 포함

자료: 금융투자협회, 한국투자증권

### ■ Appendix 3 : 주간 글로벌 주식형, 채권형 펀드 자금 유출입

지난 주 한국 관련 4대 펀드는 총 19.9억달러의 순유입세를 기록, 신흥국과 선진국펀드군이 각각 11.7억, 8.2억달러로 모두 전주 대비 유입량이 늘어났다. 신흥국에서는 아시아 퍼시픽에서의 순유출은 줄어든 반면, 남미펀드는 순유출로 돌아섰다. 채권형 펀드군의 순매수 기조는 한층 강화된 모습이다. 특히 전주에 비해 미국 채권으로의 유입세가 강화되었고, 하이일드와 신흥국 채권으로의 유입세는 다소 둔화되었다.

〈표〉 글로벌 주식형 펀드 유출입

(단위: 백만달러)

구분	지역	자산규모	한국비중	자금유출입		
				최근 1주	최근 4주	2016
선진국 투자펀드	International	2,366,503	1.1%	540.2	-1,012	10,021.2
	Pacific	55,898	6.3%	278.0	841	181.8
신흥국 투자펀드	Asia ex-Japan	365,286	14.7%	-80.2	-682	-19,142.0
	Global Emerging	475,306	9.9%	1,252.2	3,532	27,434.2
	Latin America	25,148		-149.5	-118	321.5
	Europe/Middle East/Africa	41,637		90.8	18	-1,603.2
주요 국가 및 국가군	Japan	1,183,786		-1,768.0	-5,319	5,916
	Western Europe	1,183,786		-1,768.0	-8,653	-98,116
	United States	4,216,037		-7,513.9	-12,937	-83,706
	China + Greater China	117,115		215.8	-101	-7,935

자료: EPFR, 한국투자증권

〈표〉 글로벌 채권형 펀드 유출입

(단위: 백만달러)

구분	지역별/시장별	자산규모	자금유출입		
			최근 1주	최근 4주	2016
전체 채권 펀드 (미국+신흥국+인터내셔널+하이일드)		4,083,951	11,543	24,128	180,017
신흥국 채권 펀드 (EM bond totals)		333,582	2,019	5,997	34,725
	－ EM 경화(\$) 채권	147,661	771	2,832	23,667
	－ EM 신흥국 통화 채권	137,907	1,014	1,999	9,647
	－ EM Blend 통화 채권	48,014	234	1,166	1,411
글로벌 채권 펀드		1,319,082	1,478	2,665	18,665
하이일드형 채권 펀드		489,034	2,482	637	7,392
미국 채권 펀드 (US bond totals)		1,922,269	4,253	11,481	110,855
	－ Municipal	406,407	814	2,189	30,942
	－ Floating Rate	84,432	565	2,035	－70
	－ Inflation Protected	61,450	239	779	6,173
	－ Inter. Term Corp.	40,228	286	680	5,658
	－ Inter. Term Funds	499,421	1,196	4,665	44,156
	－ Inter. Term Gov.	35,684	164	－289	3,137
	－ LT Bond	6,676	2	209	－26
	－ LT Corp.	59,601	－362	－666	8,250
	－ LT Gov.	22,681	－484	－1,049	1,299
	－ MBS	110,510	526	1,181	14,756
	－ ST Bond	252,519	1,319	1,533	－8,367
	－ ST Corp.	41,134	232	1,269	4,494
	－ ST Gov.	38,609	－94	336	－365
	－ Total Return	262,916	1,161	1,958	9,195
기타 채권 펀드 (Other bond totals)		4,558,622	2,561	－34,758	－135,584
	－ MMF 채권펀드	3,593,201	2,730	－32,823	－117,868
	－ Balanced Funds	965,421	－169	－1,934	－17,717

자료: EPFR, 한국투자증권

## ■ Appendix 4 : 주간 글로벌 업종별 등락을 상위/하위

벤치마크인 Bloomberg World Index는 이번주 0.11% 소폭 하락했다. 도이치 뱅크로 인한 위기감은 잦아들었지만, 메이 총리 연설로 인해 '하드 브렉시트' 가능성이 증가하면서 투자심리를 악화시켰다. 또한 연준의 래커 이사의 매파적 발언, ECB의 테이퍼링 시작 조짐으로 인해 투자심리는 더욱 침체됐다.

금주 상승률 상위 업종은 석유/가스, 육상 운송, 자동차, 반도체

대부분의 업종들이 하락 추세였으나, 석유/가스 서비스, 육상 운송, 자동차, 석유/가스 생산, 반도체 순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선보였고, REITS, 광업, 수도 관리, 식료품 서비스, 전기가 가장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지난달 까지만 해도 상승세이던 광업은 금이 연준의 연말 금리 인상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1300선 밑으로 하락해 관련 업종들을 끌어내렸다.

석유/가스는 OPEC 회담 이후 상승 중

한편, 계속 박스권에 머물던 유가가 지난주 OPEC의 감산 협상이 체결되면서 상승 모멘텀을 얻으며 석유/가스 업종이 많이 올랐다. 석유/가스 생산 종목인 Exxon Mobile, Chevron, 그리고 석유/가스 서비스 종목인 Schlumberger는 9월 대부분의 기간동안 하락세를 보였으나, 9월 말 OPEC 회의를 기준으로 반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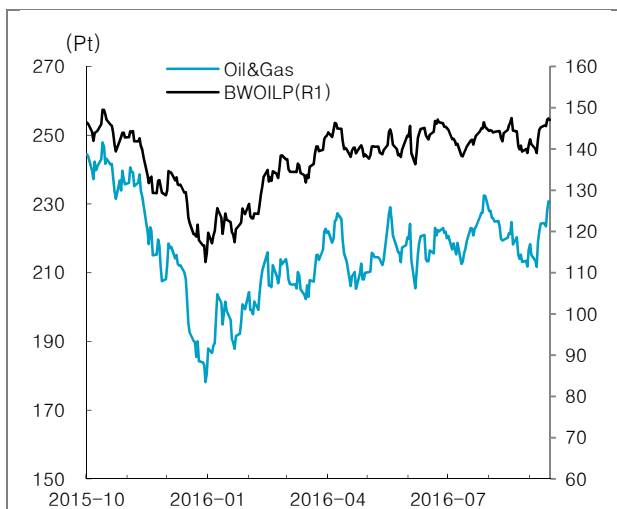
〈표〉 Bloomberg World Index 업종별 수익률 상승/하락 상위

(단위: %)

상승 섹터	WTD 수익률(%)	YTD 수익률(%)	하락 섹터	WTD 수익률 (%)	YTD 수익률 (%)
석유/가스 서비스	2.89	8.79	REITS	-4.86	-6.47
육상 운송	2.58	-8.81	광업	-3.33	1.32
자동차	1.72	-6.45	수도 유틸리티	-3.23	-0.70
석유/가스 생산	1.51	12.25	식료품 서비스	-3.06	-2.00
반도체	1.39	26.67	전기	-2.64	-3.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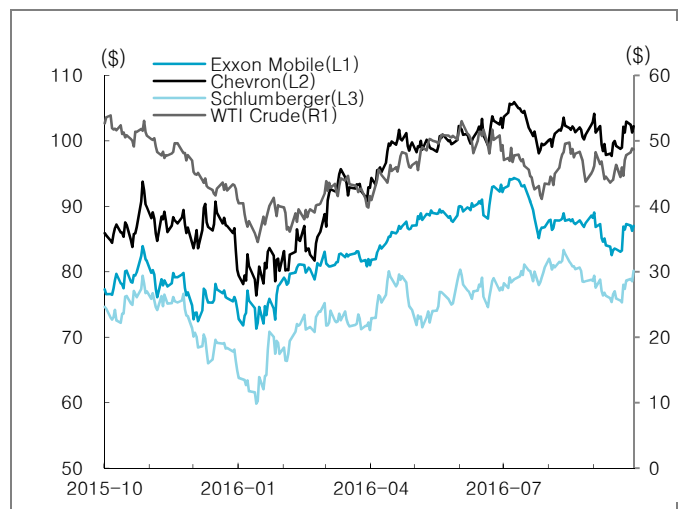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1] 벤치마크 대비 상위 업종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2] 주요 석유/가스 기업들의 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Appendix 5 : 주요 증시 일정

10(월)	11(화)	12(수)	13(목)	14(금)
中> 통화공급 M2 YoY (n/a, 11.6%, 11.4%)	日> 8월 경상수지(십억 엔) (n/a, n/a, 1,938.2)	韓> 9월 실업률 (n/a, n/a, 3.8%) 日> 8월 핵심기계수주 QoQ (n/a, n/a, 4.9%) 유럽> 8월 산업생산 MoM (n/a, n/a, -1.1%)	韓> 금융통화위원회 (n/a, n/a, 1.25%)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n/a, n/a, n/a) 9월 FOMC 회의록 발표	美> 소매판매 추정 QoQ (n/a, 0.4%, -0.3%) PPI 최종수요 MoM (n/a, 0.2%, 0.0%) 연준 엘런 연설(15일) 中> 9월 CPI YoY (n/a, n/a, 1.3%) 9월 PPI YoY (n/a, n/a, -0.8%) 日> 9월 PPI YoY (n/a, n/a, -3.6%)
17(월)	18(화)	19(수)	20(목)	21(금)
美> 9월 광공업생산 MoM (n/a, 0.1%, -0.4%) 日> 8월 광공업생산 MoM (n/a, n/a, 1.5%) 유럽> 9월 CPI YoY (n/a, n/a, 0.4%)	美> 9월 CPI MoM (n/a, 0.3%, 0.2%) 실적발표> LG 화학	美> 9월 주택착공건수(천건) (n/a, 1170, 1,142) 대선 대통령 후보 토론 中> 3분기 GDP YoY (n/a, 6.7%, 6.7%) 9월 광공업생산 YoY (n/a, 6.4%, 6.3%) 日> 8월 전체산업 활동지수 MoM (n/a, n/a, 0.3%) 실적발표> 우리은행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n/a, n/a, n/a) 9월 기존주택매매(백만) (n/a, 5.40, 5.33) 9월 선행지수 (n/a, 0.2%, -0.2%) 연준 Beige Book 발표 유럽> ECB 기준금리 실적발표> 신한지주, KB금융	유럽> 10월 소비자기대지수 (n/a, n/a, -8.2) 실적발표> 하나금융지주

정리: 한국투자증권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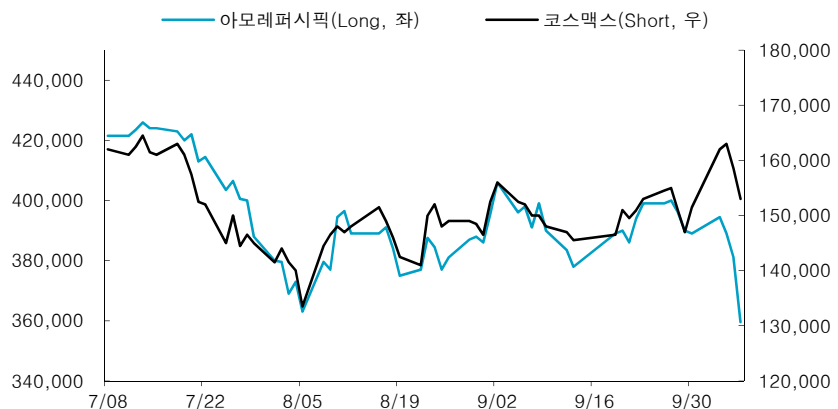
## 페어트레이딩(10월2주차)

- ▶ 아모레퍼시픽(L)–코스맥스(S)
- ▶ 대림산업우(L)–대림산업(S)
- ▶ 현대제철(L)–POSCO(S)
- ▶ CJ우(L)–CJ(S)
- ▶ LG생활건강우(L)–아모레퍼시픽우(S)

### 페어1: 아모레퍼시픽(L)–코스맥스(S)

첫 번째 페어트레이딩 전략은 아모레퍼시픽을 long, 코스맥스를 short하는 페어다. 3분기 면세점 매출 둔화가 우려되는 아모레퍼시픽 주가는 9월 29일 이후 7.8% 하락했다. 반면에 중국 온라인 쇼핑물 운영권을 확보한 코스맥스는 같은 기간 4.1% 상승해 아모레퍼시픽과 대조를 이뤘다. 우리의 모델에 따르면 단기간 벌어진 두 종목 주가는 수렴할 가능성이 높고, 수렴 시 기대수익률은 10.1%이다.

[그림 1] 주가 추이 (아모레퍼시픽–코스맥스)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 <표 1> 페어1 종목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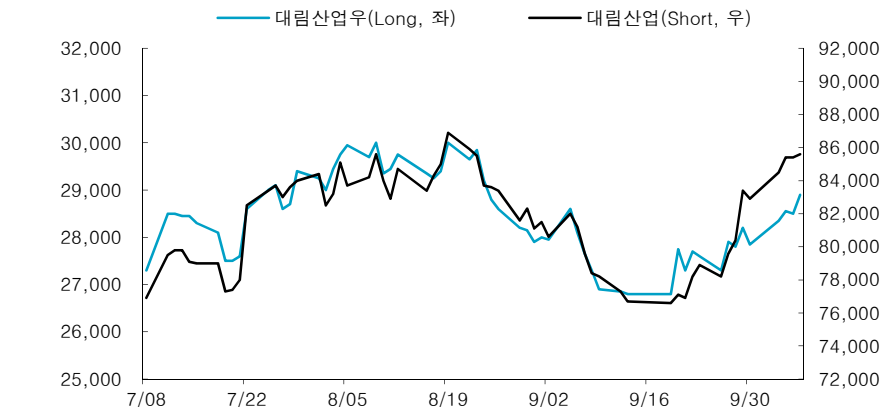
매매방향	종목코드	종목명	시가총액 (십억 원)	PER(x)		PBR(x)		ROE(%)		EPS 증가율(%)		주요 이슈
				15A	16F	15A	16F	15A	16F	15A	16F	
Long	A090430	아모레퍼시픽	21,016	49.5	33.6	8.6	6.2	18.6	20.2	52.3	27.7	3분기 면세점 매출 둔화 우려
Short	A192820	코스맥스	1,377	78.0	38.0	16.9	10.9	23.8	32.3	5.9	70.5	중국 티몰 내 화장품관 운영권 획득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 페어2: 대림산업우(L)–대림산업(S)

두 번째는 대림산업 우선주를 long, 보통주를 short하는 페어트레이딩 전략이다. 9월 28일 이후 두 종목 모두 주가가 오르고 있지만, 6.5% 상승한 보통주에 비해 우선주는 비교적 낮은 4.0%의 상승세를 보였다. 우리는 단기간 벌어진 두 종목 주가의 수렴을 전망하며, 수렴 시 5.3%의 수익률을 기대한다.

[그림 2] 주가 추이 (대림산업우-대림산업)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표 2> 페어2 종목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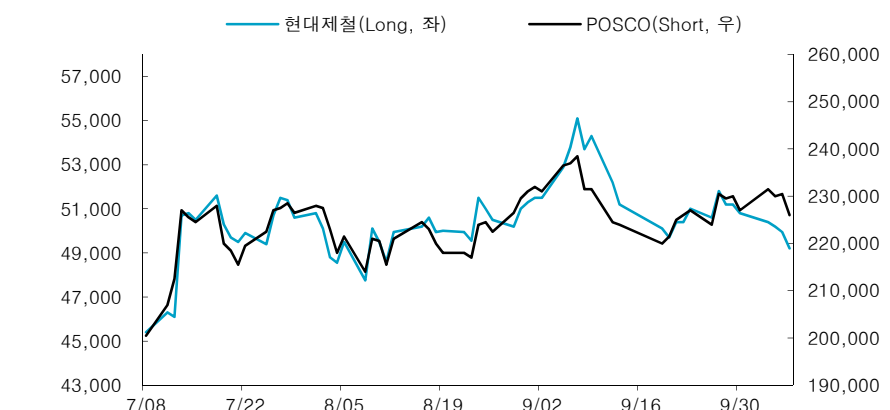
매매방향	종목코드	종목명	시가총액 (십억 원)	PER(x)		PBR(x)		ROE(%)		EPS 증가율(%)		주요 이슈
				15A	16F	15A	16F	15A	16F	15A	16F	
Long	A000215	대림산업우	110	12.5	10.0	0.6	0.7	4.8	7.5	흑전	62.0	-
Short	A000210	대림산업	2,979	12.5	9.9	0.6	0.7	4.8	7.5	흑전	62.0	-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 페어3: 현대제철(L)-POSCO(S)

9월 30일 이후 주가가 3.1% 하락한 현대제철을 long, 같은 기간 0.4% 하락한 POSCO를 short하는 페어를 세 번째 페어트레이딩 전략으로 제시한다. 두 종목 모두 하락하는 가운데, 자동차용 강판 가격 인상 가능성이 하락한 현대제철의 하락세가 3분기 배당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POSCO보다 더 컸다. 하지만 우리는 두 종목의 주가가 단기간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하며, 수렴 시 4.1%의 수익률을 기대한다.

[그림 3] 주가 추이 (현대제철-POSCO)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표 3〉 페어3 종목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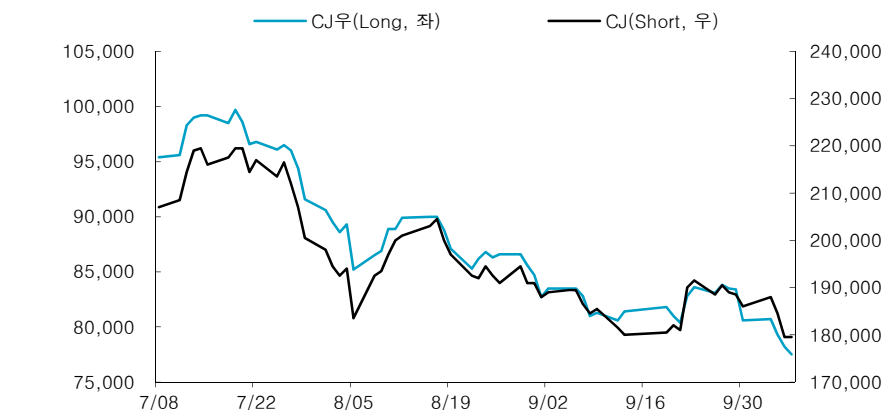
매매방향	종목코드	종목명	시가총액 (십억 원)	PER(x)		PBR(x)		ROE(%)		EPS 증가율(%)		주요 이슈
				15A	16F	15A	16F	15A	16F	15A	16F	
Long	A004020	현대제철	6,566	8.5	7.4	0.4	0.4	5.1	5.7	-10.6	13.4	자동차용 강판 가격 인상 가능성 하락
Short	A005490	POSCO	19,704	80.4	12.2	0.3	0.4	0.4	3.9	-71.2	795.9	3분기 배당 기대감 상승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 페어4: CJ우(L)–CJ(S)

네 번째는 CJ 우선주를 long, 보통주를 short하는 우선주 페어트레이딩 전략이다. 9월 29일 이후 CJ 우선주는 7.1% 하락하며, 같은 기간 4.8% 하락한 보통주보다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하지만 우리의 모델에 따르면 두 종목 주가는 단기간에 수렴할 가능성이 높고, 수렴 시에 4.2%의 수익률이 기대된다.

[그림 4] 주가 추이 (CJ우–CJ)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표 4〉 페어4 종목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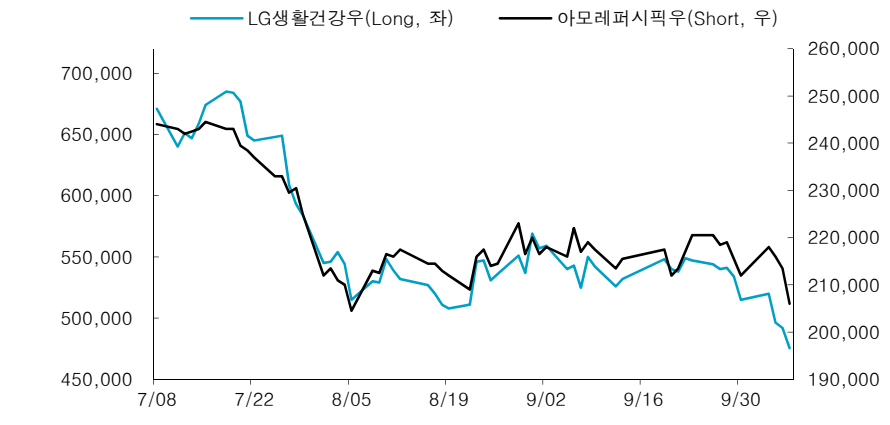
매매방향	종목코드	종목명	시가총액 (십억 원)	PER(x)		PBR(x)		ROE(%)		EPS 증가율(%)		주요 이슈
				15A	16F	15A	16F	15A	16F	15A	16F	
Long	A001045	CJ 우	175	38.3	20.1	2.0	1.3	5.9	7.4	-1.8	34.9	-
Short	A001040	CJ	5,237	38.3	20.3	2.0	1.3	5.9	7.4	-1.8	34.9	-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 페어5: LG생활건강우(L)–아모레퍼시픽우(S)

마지막은 LG생활건강 우선주를 long, 아모레퍼시픽 우선주를 short하는 우선주 페어트레이딩 전략이다. 9월 30일 이후 LG생활건강 우선주 주가는 7.7% 하락하여, 같은 기간 2.8% 하락한 아모레퍼시픽 우선주보다 더 큰 폭으로 낮아졌다. 우리는 두 종목 주가가 단기간에 수렴할 것으로 판단하며, 수렴 시 기대수익률은 9.9%다.

[그림 5] 주가 추이 (LG생활건강우-아모레퍼시픽우)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표 5> 페어5 종목 요약

매매방향	종목코드	종목명	시가총액 (십억 원)	PER(x)		PBR(x)		ROE(%)		EPS 증가율(%)		주요 이슈
				15A	16F	15A	16F	15A	16F	15A	16F	
Long	A051905	LG생활건강우	998	40.4	26.2	8.6	5.9	25.1	26.6	31.7	33.9	3분기 면세점 매출 둔화 우려
Short	A090435	아모레퍼시픽우	2,175	49.5	34.4	8.6	6.4	18.6	20.2	52.3	27.7	3분기 면세점 매출 둔화 우려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 • 한국투자증권 페어트레이딩 모델

- 본 자료에서 제시하는 페어트레이딩 전략은 기술적 분석에 기반을 둔 퀀트 모델을 통해 도출되므로, 한국투자증권의 공식적인 투자 의견과 다를 수 있음
- 이 퀀트 모델은 통계적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은 페어를 제시, 하지만 두 종목의 최근 주가에 영향을 주었던 이슈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경우 이 자료에서 제시한 페어와 반대 방향으로 투자하는 역발상 전략이 더 유효할 수 있음
- 본 자료에서 제시된 페어 중에는 short이 불가능하거나 높은 비용이 수반돼 실제 거래에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인덱스 펀드의 경우 해당 종목의 투자 비중을 조절해 료헷 효과를 누릴 수 있음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부동산 규제책 강화에 홍콩H 약세 전환

- ▶ 상해종합지수 국경절 연휴로 1~7일 휴장, 10일부터 정식 개장 예정
- ▶ 홍콩H지수 0.2% 하락, 부동산 규제책과 건자재 종목들에 대한 숏 포지션 집중된 것이 약재

### ■ 중국 시장

국경절 연휴로 7일까지 휴장,  
10일부터 정식 개장 예정

국경절 연휴로 1~7일 휴장, 10일 정식 개장 예정

### ■ 홍콩 시장

홍콩H지수 0.2% 하락  
자본재, 소재, 은행, 증권 등  
의 업종 약세

홍콩H지수는 0.2% 하락한 9,924p로 마감하며 하루 만에 약세로 전환했다. 주간 단위로는 3.6% 상승했다. 소폭 상승 출발했으나 바로 약세로 전환한 뒤 등락을 보였다. 9월 비농업부문 고용 결과를 앞두고 경제심리가 부각됐던 가운데 중국 국경절 기간에 십여개의 지방정부가 부동산 규제책을 강도 높게 제시한 것이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특히 시멘트, 알루미늄 등 건자재 종목들에 대한 숏 포지션이 집중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자본재, 소재, 은행, 증권 등 업종들이 하락했던 반면 부동산, 항공주, 자동차 등 업종들은 경제지표 개선으로 상승 마감했다. 홍콩증시는 10일 '중양절 기념일'을 맞아 휴장하며, 11일 정식 개장 예정이다.

#### ◆ 주요 이머징마켓 주가지수 추이

(단위: p, %)

구 분	10/7(금)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상해종합	3,004.70	휴장	-0.96	-2.04	-15.10
심천종합	1,995.61	휴장	-0.62	-0.68	-13.57
차스닥	2,149.90	휴장	-0.31	-0.97	-20.79
홍콩H	9,923.82	-0.23	3.57	-0.47	2.72
Shibor 7일물 금리(% , %p)	2.48	-0.40	2.95	4.69	5.18
Shibor 1개월 금리(% , %p)	2.74	-0.07	0.41	1.67	-8.69
중국국채 3년물(% , %p)	2.39	0.07	-0.42	-1.50	-7.02
위안/달러 고시환율	6.6778	0.12	0.16	-0.05	2.84
역내 위안/달러	6.6718	-0.07	-0.04	0.11	-2.67
역외 위안/달러	6.7083	-0.01	-0.47	-0.55	-2.08

주: 7일 오후 6시 18분 기준

##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세로 급락세

- 미국증시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 4년래 최저치 기록에 따른 금리인상 우려 고조에도 불구하고 ECB의 경기부양책 지속 전망으로 낙폭을 줄이며 약보합세. 소폭 오름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수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증시 전반적 하락 속에 기관 매도세에 2,050P선으로 후퇴하며 약세로 마감. 소폭 오름세로 출발한 코스닥도 한미약품 사태 여파로 제약/바이오주들이 큰 폭으로 밀린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도세에 전날보다 1.23% 하락한 675.9P로 장 마감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안정성장세 지속 전망에 대림씨엔에스가 강세를 보임. 현대중공업은 조선 업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실적 회복 기대감에 신고가를 경신했고 주택 사업 호조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에 현대산업이 상승세를 보임. 미국 관계사 리젠Rx의 안구건조증 치료제 신약 승인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에 지트리비엔티가 급등세를 보였으며, 자회사인 넷게임즈가 코스닥시장에 우회상장한다는 소식에 바른손이앤에이가 상한가를 쳤으며,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의 변신 기대감과 무상증자 소식에 아리온이 초강세를 보임. 반면, 한미약품의 '올리타정' 부작용 추가 확인 소식에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며 제약/바이오주가 동반 급락세를 보였고, 가슴기 살균제 원료 물질 함유 치약 논란에 이어 식약처로부터 2건의 화장품 제조 업무 정지 처분 소식에 아모레퍼시픽이 하락세를 보임.

종목/테마	내 용
<b>대림씨엔에스</b> <b>▶24,000(+7.62%)</b>	<b>안정성장세 지속 전망에 강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속된 지진으로 콘크리트파일 시장에서 고기능파일의 비중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절대 망하지 않고 성장을 지속할 업체라는 전망에 강세</li> <li>- 동사는 콘크리트파일 시장 점유율(19%) 1위이자 초고강도·대구경 파일 시장 점유율(47%)도 1위이고 스틸강교에서도 점유율 57%로 압도적 1위를 유지</li> </ul>
<b>바른손이앤에이</b> <b>▶3,495(상한가)</b>	<b>자회사 넷게임즈의 우회상장 소식에 상한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기 모바일게임 '히트'를 탄생시킨 넷게임즈가 내년 초 엔에이치스팩9호와 흡수합병되면서 코스닥시장에 우회상장한다는 소식에 상한가</li> <li>- 동사는 자회사 우회상장으로 평가차익만 최소 1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아시아 시장 진출 및 차기작 개발 본격화 예상</li> </ul>
<b>아리온(058220)</b> <b>▶9,650(+28.67%)</b>	<b>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의 변신 기대감에 무상증자 소식이 더해지며 초강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라인엔터테인먼트, 드림엔터테인먼트, YMC엔터테인먼트 등에 대한 인수 및 지분투자를 통해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변신 가능성과 1대 1의 무상증자 등 적극적인 주주정책이 투자심리를 자극하며 신고가 경신</li> <li>- 최근 아시아 한류 시장에서 예능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만큼, 각 회사들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li> </ul>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52주 신고가

종목	내 용
<b>삼성전자(005930)</b> <b>▶1,706,000 (+0.89%)</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3분기 실적발표와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에 사상 최고가 경신</li> </ul>
<b>현대중공업(009540)</b> <b>▶149,500(+2.40%)</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업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실적 회복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li> </ul>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주요 종목들로 추천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 상기 종목들은 10월 7일 장중 기준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의 현황이며, 등락률은 주간 등락률입니다.

## 단기 유망종목: 유니트론텍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종 목 (코 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유니트론텍 (142210)	30,000 (+14.1)	26,300 (09/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전장용 메모리 반도체 부문 1위인 Micron사의 국내 반도체 유통을 독점적으로 담당해 안정적인 매출 성장 기대. 작년부터 발생한 대만 AUO사의 디스플레이 모듈 유통 매출의 빠른 증가세에 주목</li> <li>- '시리얼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와 조인트벤처 '유니트론텍차이나' 설립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중국 내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사업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li> </ul>
큐리언트 (115180)	36,200 (-22.3)	46,600 (09/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상2A상을 완료한 아토피성 피부염치료제 Q301의 기술 이전 기대감 여전. 아토피 치료제 전문회사인 '아나코'를 화이자가 52억 달러에 M&amp;A하면서 아토피치료제에 대한 시장 관심이 높아짐</li> <li>- FDA로부터 Q203은 임상 2상을 완료한 후 조건부허가를 받게 되면 Priority Review Voucher를 획득할 전망. 마지막으로 거래된 PRV의 가격은 3억5천만달러로 현재 시총을 감안할 때 bottom Value 매력 존재</li> </ul>
진성티씨 (036890)	6,810 (+12.9)	6,030 (08/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대선 후보들의 인프라투자 확대 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등 인프라투자 증가 기대감으로 Caterpillar, Hitachi 등 글로벌 건설기계 업체들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 이들 업체에 굴삭기 하부 주행체 부품을 공급중인 동사의 수혜 가능성 상존. 비용 절감을 위해 완성차 업체들의 부품 아웃소싱 비중이 높아지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li> </ul>
아진산업 (013310)	11,750 (+11.9)	10,500 (08/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년 12월 현대기아차 개폐 구조물(moving parts) 신규 수주로 16년 700억원의 추가 매출 발생 예상</li> <li>- 설비증설 효과 본격화와 평균평가 상승에 따른 마진 개선을 감안할 때 저평가 매력은 여전한 상황</li> <li>- 개폐 구조물 신규 수주, 중국 설비증설, 차체 경량화, 부품 라인업 다각화 등을 통해 성장 잠재력 강화 전망</li> </ul>
씨아이맥스 (160980)	15,600 (+10.2)	14,150 (07/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장비 업체인 원익IPS, Semes, Applied Materials, 테스, ASMGK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웨이퍼 이송장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li> <li>- 삼성전자의 평택 단지 투자가 본격화됨에 따라 성장성 부각될 전망. 향후 삼성전자 외 중국 업체 등으로 고객 확대 가능성 및 후공정 패키징 이송장비 등 제품 다변화에 주목</li> </ul>
베셀 (177350)	7,280 (+43.3)	5,079 (07/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OE, CEC-Panda, CSOT, Tianma 등 중국 주요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를 고객사로 두고 있으며, 중국 LCD In-Line 시스템 제조 분야 시장점유율 1위로 고객사들과 높은 신뢰관계를 유지</li> <li>- 중국 디스플레이 패널업체들의 대형 LCD 투자에 따라 수주 모멘텀이 지속될 전망이며, OLED 공정에 In-Line 시스템 시험 생산 장비 납품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중국 패널 업체들의 OLED 투자에 따른 수혜 전망</li> </ul>

##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베셀은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가 발생해 수정주가를 적용하였습니다.

## 중장기 유망종목: 이마트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십억 원, 배)

편입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6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이마트 (139480)	155,000 (-1.3)	157,000 (09/22)	14,600	501	296	10,619	1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마트가 90% 지분을 보유한 신세계프라퍼티의 제1호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하남이 최근 오픈. 2021년까지 총 6개의 복합쇼핑몰을 계획하고 있어 장기적인 성장성에 주목</li> <li>- 스타필드하남은 스포테인먼트 시설과 유명 맛집 등 집객 효과가 높은 시설들로 구성되어 있어 교외형 복합쇼핑몰의 성공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PBR은 0.63배로 역사적 최저 수준</li> </ul>				
씨엠에스에듀 (225330)	30,700 (+14.1)	26,900 (08/26)	56.8	10.7	8.9	2,244	1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차별화된 커리큘럼과 교육방식을 기반으로 매출 상승세 지속</li> <li>- 적영점 및 가맹점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로 해외 진출 본격화</li> <li>- 16년 예상 PER은 11배 수준으로 주요 사교육업체 평균 예상 PER 17배 수준 대비 저평가</li> </ul>				
비아트론 (190510)	25,950 (-3.9)	27,000 (08/26)	91.6	24.5	17.7	1,731	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OE를 시작으로 Tianma와 Visionox 등 중국 패널업체들의 flexible OLED 설비투자 본격화에 따른 수혜 전망</li> <li>- LG디스플레이의 6세대 flexible OLED라인 설비투자 관련 장비 발주 예상</li> <li>- 주요 고객사의 중소형 OLED 투자 확대에 따른 수주 모멘텀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li> </ul>				
대상 (001680)	28,600 (-2.6)	29,350 (06/22)	2,946	131	82	2,288	1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라이신부문이 빠른 공정 효율화 작업으로 수익성 개선되고 있고 하반기 베스트코의 실적 회복 기대</li> <li>-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식품부문의 영업이익률 향상 전망. 내년 초 공장이 완공되는 인도네시아의 전분/전분당 사업추가로 갈수록 실적 개선 폭 커질 전망</li> <li>- 올해 예상 PER 12.3배로 업종 평균 21.0배 보다 크게 낮아 밸류에이션 매력 상존</li> </ul>				
SK머티리얼즈 (036490)	152,100 (-22.7)	124,000 (04/25)	462	169	120	11,433	1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K그룹에 편입되면서 전반적인 대외신인도 향상 및 시너지 효과 기대. 반도체 사업은 SK그룹의 핵심 육성 사업으로 수직계열화 측면에서 SK머티리얼즈의 전략적 가치 부각</li> <li>- 반도체 업체들의 지속적인 미세공정 전환과 3D NAND 투자 확대 수혜. 국내 및 중국 디스플레이업체들의 공격적인 플렉서블OLED라인 및 대형 OLED투자로 중장기적 수요 증가에 따른 실적 성장 기대</li> </ul>				
한섬 (020000)	41,300 (+1.4)	40,350 (04/22)	710	84	69	3,132	1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 및 신규 브랜드 도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 현대백화점의 신규 출점 효과 등에 힘입어 외형 확대와 이익 개선세 가시화</li> <li>-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온라인, 홈쇼핑 등 판매 채널 확장으로 추가 성장여력 제고 예상</li> <li>- 경쟁업체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성과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저평가 상태</li> </ul>				

##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이마트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건자재: 콘크리트파일: 사양산업의 역설(逆說)

### ■ 재정확대와 인프라 투자, 콘크리트파일은 끝이 아니다

그간 콘크리트파일은 사양산업의 대명사였다. 건설시장 내 비중이 높았던 주택공급은 최근 인허가 트렌드로 판단 시 점차 안정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5년 토목수주는 43% 늘며 7년만에 증가세로 반전했고 비주거수주는 40% 늘었다. 정부가 '민간투자사업 개정안'을 통해 BTO-rs 방식을 도입하는 등 민자사업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규제를 완화한 영향이다. 저금리로 투자대상이 마땅치 않았던 금융기관의 투자 촉진과 재정확대 정책으로 향후 3~4년간 건설수주는 2015년 134조원 대비 소폭 감소한 120조원 내외를 유지할 전망이다.

### ■ 안전의식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안전규제가 강해지고 있다. 특히 연속된 지진으로 정부는 취약 인프라를 개보수하고 신축물의 규제 수준을 강화하고 있다. 내진설계와 직결되는 콘크리트파일의 투입수량이나 초고강도/대구경파일 등의 고기능파일 수요가 늘어나는 환경이 마련됐다. 국내 콘크리트파일 시장에서 고기능파일의 비중은 2013년 5%에서 2016년 상반기 11%로 상승했다. 일본의 경우 고기능파일 비중은 2004년 18%에서 2015년 53%로 높아지며 건설투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성장세다. 고기능파일 비중이 2020년까지 일본의 절반 수준으로 상승한다면 건설투자 감소를 가정해도 콘크리트파일 시장은 연평균 3% 성장이 가능하다.

### ■ 절대 망하지 않고 성장을 지속할 업체, 대림씨엔에스

할인이 심했던 콘크리트파일의 재평가가 필요하다. 시공방식 선진화와 건설사의 비용 효율성 추구로 제품 사양이 빠르게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업계 1위인 대림씨엔에스의 목표주가를 2016~2017년 평균 EPS에 PER 9배를 적용한 30,000원으로 제시한다. 고기능파일 비중이 2014년 10%에서 2017년 28%로 빠르게 늘어나며 2015~2018년 EPS CAGR은 11%에 달한다. 콘크리트파일의 투자포인트는 이제 착공 사이클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성으로 전환돼야 한다.

\*상기 보고서는 2016년 10월 6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기계: 3Q16 Preview: 수주가 필요한 4분기

### ■ 대형사 3분기 본업 실적은 양호

한국증권 기계업 대형사(한국항공우주(KAI), 한화테크윈, 두산중공업, 현대엘리베이터)들의 3Q16 영업 실적은 대체로 컨센서스에 부합할 전망이다. 상기 업체들은 매출액이 수주잔고에서 발생해 일회성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분기 및 연간 매출액 가시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4개사 모두 지난 2~3년간 수주잔고가 꾸준히 늘었기 때문에 전년대비 매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다. 업체별 특이사항으로는 두산중공업은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현대엘리베이터는 본업은 양호하나 일회성비용(현대상선 주식 감자) 인식으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 ■ 최근 다양한 악재 노출, 한국항공우주는 매수 기회

정기 국정감사가 9월말부터 진행되고 있다. 그 동안 보안 등의 이유로 정보 접근이 제한적이었던 정부관련 사업들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KAI도 수리온 헬기 관련 부정적인 뉴스가 보도되면서 9월 고점 이후 9% 조정 받았다. 올해 초 미국에서 진행된 체계결빙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고, 방사청은 개선안을 결정하기 위해 수리온 헬기 일시 납품 정지를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 예상했던 수리온 3차 양산(1.7조원) 및 상륙기동헬기(0.7조원) 불확실성이 생긴 것이다.

수리온 헬기는 2012년부터 전력화된 기종으로 국내 작전수행을 위한 저온 환경 테스트는 국내(강원도 양구), 해외(알래스카 영하 40도 이하)에서 이미 통과했으며 2012년부터 전력화됐다. 금번 실패한 체계결빙 테스트는 저온뿐만 아니라 다습한 환경이라는 보다 더 극한 상황을 가정한 군의 요구조건이었다. 수리온 뿐만 아니라 선진업체들도 결빙 테스트는 납품 후 진행할 정도로 일반적인 작전 수행에는 큰 문제가 없다. 따라서 방사청도 납품 재개 및(기존 계획 대비 조금 늦어질 수 있지만) 3차 양산 발주도 단기간 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달 예상되는 방사청의 개선안 발표와 함께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될 전망이다.

### ■ 주가 차별화 위해서는 4분기 수주가 중요

정부 발주가 많은 방위산업(KAI, 한화테크윈), 발전플랜트업(두산중공업)의 특성상 4분기는 전통적으로 수주가 집중되는 시기다. KAI와 두산중공업의 3분기말 기준 추정 수주액은 각각 0.2조원, 3.5조원으로 아직 연간 예상 매출액(KAI 3.4조원, 두산중공업 6.8조원)에 크게 못 미친다. 일부 프로젝트가 다소 지연되기도 했고, 한국항공우주와 두산중공업은 각각 수리온, (지진으로 인한) 원전 발주 불확실성이 생기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한화테크윈을 포함한 각 업체들의 대형 수주 pool은 풍부한 만큼 4분기에 연중 가장 강한 수주모멘텀을 보일 것이다. 수주 실적이 4분기 주가 흐름을 결정할 것이다.



### ■ 3Q16 Preview: 단기 한국항공우주, 두산중공업 선호

#### ▶ 한국항공우주(047810, 매수/TP 110,000원): 양호한 실적, 수리온 불확실성 해소 기대

한국항공우주는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양호한 3분기 실적을 발표할 전망이다. 추정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8,700억원(+23.6% YoY), 940억원(+18.2% YoY)이다. 방산부문의 매출 비중이 소폭 커지고, 평균 원달러 환율이 소폭 낮아져 영업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5%p 낮아진 10.8%를 기록할 것이다. 최근 이슈화 됐던 수리온 헬기 매출은 진행률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고 있어 단기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리온 개선 후속조치(체결결빙 테스트 관련)에 따라 납품 재개 및 수주모멘텀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4분기 수주 가능 프로젝트는 수리온 및 상륙기동헬기 2.4조원, 보잉 777x 원형(경쟁입찰) 등이다. T-X(미공군 훈련기 교체 프로젝트) RFP(세부요구조건)도 12월에 공개되면 주가 상승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

#### ▶ 한화테크윈(012450, 매수/TP 73,000원): 안정적인 실적, 수주 가시성 높은 4분기

한화테크윈의 3분기 실적은 컨센서스에 부합할 전망이다. 한화디펜스(구 두산디에스티)를 포함한 추정 연결 매출액은 9,300억원(+43.5% YoY), 영업이익은 526억원(+119% YoY)이다. 지난 6월부터 한화디펜스가 연결회사로 편입됐기 때문에 전년대비 증가폭이 크다. 3분기에는 2분기에 양호한 실적을 이끌었던 K9 폴란드 수출 관련 매출액이 전분기 약 200억원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나 방산부문의 높은 영업이익률은 이어질 것이다. 4분기 기대되는 수주는 인도 K9(현지언론은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 보도 - 약 4,000억원), 폴란드 K9(후속발주, 2,500억원) 등이며 다른 업체대비 비교적 수주 가시성이 높다.

#### ▶ 두산중공업(034020, 매수/TP 36,000원): 굴곡 있었지만 변함없는 큰 그림

관리연결(두산중공업 본사 및 해외발전자회사) 추정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조 6,430억원(+5% YoY), 930억원(+34.9% YoY, 영업이익률 5.7%)이다. 전년동기대비 매출액이 늘어나는 것은 지난 2012년 이후 처음이다. 수주잔고는 2014년부터 늘어났는데 매출인식까지 1~2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국내 프로젝트 공정 지연으로 당초 예상보다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 시점이 늦어졌지만 올해 3분기를 변곡점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재무연결(관리연결+두산인프라코어+두산엔진+두산건설) 기준으로도 두산인프라코어를 중심으로 자회사 실적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지진으로 인한 원전 수주 지연 가능성(2.1조원)이 부각됐지만 기대감이 크지 않았던 인도 발전 수주 2.5조원의 가시성이 높아지면서 수주가 연간 매출액(6.8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또한 밥캣 IPO는 공모금액과 큰 상관없이 자회사 재무구조 개선 관점에서 상장만으로도 수혜를 입을 것이다. 4분기 수주 가능 대규모 프로젝트는 사우디 1조원(컨소시엄이 이미 수주), 인도 2.5조원(2개 프로젝트 합산), 신한울 원전 3, 4호기(지연 가능성 높음) 등이다.

#### ▶ 현대엘리베이터(017800, 매수/TP 72,000원): 실적 양호하나 CB전환 우려감도 존재

현대엘앤알(호텔업), 현대아산, 현대중합연수원 등을 포함한 예상 연결 실적은 매출액 4,680억원, 영업이익 457억원(영업이익률은 9.8%) 당기순손실 310억원이다. 현대엘리베이터 본업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4,400억원, 462억원(영업이익률 10.5%)으로 전년동기대비 15.9%, 15.6%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상반기까지 주택분양 시장이 양호했기 때문에 최소한 내년 하반기까지는 분기별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새로 편입된 자회사들의 합산 영업이익은 소폭 적자 수준으로 양호한 본업 실적을 훼손하지는 않는다. 3분기 특이사항으로는 현대상선 차등감자에 따른 일회성손실 약 750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적은 안정적이지만 단기 투자 관점에서는 전환사채 전환(전환가 48,698원, 현 발행주식수의 16% 물량. 이중 현대엘리베이터 콜옵션 보유분 6% 제외한 10%는 11월 6일부터 전환 가능)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의 접근을 권고한다.

\*상기 보고서는 2016년 10월 6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화학: 하락 위험 여전히 존재

### ■ 업스트림 스프레드 강세 이어졌으나...

역사적 고점 수준의 업스트림 스프레드 강세가 한 분기 더 이어지며, 2016년 3분기 평균 에틸렌 스프레드는 전분기 대비 5% 확대된 톤당 733달러였다. 견조한 마진의 배경은 크게 세 가지다: 1) 선구매 활동에 힘입은 산업 전반 센터먼트가 개선됐고, 2) 신규 설비 가동 지연과 함께 공급 충격이 늦춰졌고, 3) 공급 차질 물량이 예상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올 해 유달리 수요 측면에서 선구매를 촉진하는 여러 이벤트들이 있었다. 3월 유가 반등부터 시작해 여름 휴가철, 중국 G20 정상회의, 중국 국경절까지 순차적으로 화학제품 가격 상승을 이끌면서 9월까지 강세가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게다가 신규 설비 가동 영향이 지연된 가운데, 동북아시아 지역의 공급차질 물량은 8~9월 피크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다운스트림 스프레드는 회복되지 못했다는 점을 보면, 주요 다운스트림 제품의 공급과잉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해석된다.

### ■ 지속되는 우려들

앞서 언급했듯, 일회성 긍정적 이벤트로 인해 2~3분기 에틸렌 스프레드는 과도하게 상승했다. 그러나 신규 설비 및 재가동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하락 압력을 크게 받을 전망이다. 수요가 부진한 시기(4분기~1분기)에 발생하게 될 공급충격 또한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4분기와 내년 1분기 에틸렌 스프레드는 3분기 평균 대비 32%, 40% 하락해 톤당 500달러와 450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설비가 재차 지연되고 예기치 않은 공급차질이 발생할 경우, 역사적 고점 수준으로 높아진 이익 수준이 1~2분기 정도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으나, 향후 분기 실적 하락 가능성은 소멸되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 아시아 지역의 공급차질 물량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황으로, 현재 공급차질 물량의 20% 이상은 향후 정상화될 전망이다. 다운스트림 수요가 공급물량 대비 부진한 가운데, 신규 설비들 또한 완공 돼 가동이 임박한 상태다. 현 증설 스케줄을 감안할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하락 추세는 불가피하며, 에틸렌 스프레드는 2018년 톤당 200~250달러까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 ■ 또 한 번 이익 실현의 기회

화학 업종에 대해 부정적 전망을 유지하며, 업스트림 스프레드가 견조한 시점에서 이익 실현할 것을 추천한다. 업스트림 스프레드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확대되고 화학사 실적 추정치의 상향 조정이 이어진다고 해서, 화학 사이클의 향후 하락 전망이 변하지 않는다. 역사적 고점 수준의 업스트림 마진을 고려하면, 신규 설비 가동 및 재가동이 연기되고, 정기보수가 연장되거나 추가로 실시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롯데케미칼과 LG화학의 2016년 실적 추정치를 8~18% 상향하지만, 2017년 양사의 화학부문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37~50%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상승 위험은 크게 두 가지다: 1) 유가 상승에 기인해 화학제품 가격 전반의 센터먼트 개선이 이어지고, 2) 신규 설비 가동의 추가적 지연과 대규모 공급차질이 발생할 경우다. 그러나 이는 결국 일회성 요인에 그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기 보고서는 2016년 10월 6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엔씨소프트(036570)

## 매수(유지)

목표가: 360,000원(유지)

종가(10/6): 305,000원

## 3Q16 Preview: 화려한 비상을 위한 웅크림

## ■ 한 템포 쉬어가는 3분기

엔씨소프트의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2,279억원(+16.5% YoY)과 704억원(+39.2% YoY)으로 추정한다. 리니지 매출은 2분기 아이템 이벤트 효과 감소로 전분기 대비 9.4% 감소한 856억원으로 예상되지만 9월말 실시된 ‘발라카스 업데이트’와 신규 서버 추가로 4분기 매출은 반등할 전망이다. B&S 매출은 북미 지역 이벤트 종료와 매출 하향 안정화로 전분기 대비 11.2% 감소한 434억원으로 추정된다. 로열티 매출은 7월 중국에서 출시된 천당2: 혈맹의 양호한 성과로 299억원(+30.2% YoY)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 ■ 모바일 신작 출시 본격화 시기 임박

기존 온라인 게임 IP 기반의 모바일 게임 출시가 4분기부터 본격화 될 전망이다. 넷마블이 개발한 리니지2 레볼루션은 10월13일부터 3일간의 CBT 이후 11월 출시가 예상된다. 흥행성 및 이용자 당 ARPU가 높은 MMORPG 장르라는 점과 개발사의 공격적인 마케팅을 감안할 때 성공 가능성은 매우 높다. 흥행 시, 로열티 매출액의 증가와 보유 중인 넷마블 지분가치 확대 수혜를 누릴 전망이다. 한편 리니지 RK(Red Knights)와 리니지 M의 출시 시기는 전략적으로 연기될 전망이다. 리니지 RK는 10월 사전 예약 시작 후 연내 출시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리니지 M은 2017년 초에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 개발 문제에 따른 지연이 아닌 Cannibalization 최소화의 일환으로 우려할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 ■ 순조로운 중국 진출 기대

리니지 2 IP 기반의 천당2: 혈맹이 양호한 성과를 거둬 따라 중국 내 리니지 IP의 영향력이 확대되었으며 이는 향후 출시될 게임들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한다. 리니지2 레볼루션은 2017년 상반기 텐센트 퍼블리싱을 통해 중국에 출시될 예정이다. 퍼블리셔 역량을 감안할 때 동일한 IP 기반의 천당2: 혈맹 이상의 흥행이 예상된다. 또한 엔씨소프트는 지난 4일 알파엔터테인먼트와 총 1천만달러 규모의 리니지 RK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하며 자체 개발 모바일 게임의 중국 진출을 본격화 했다.

## ■ 매수 의견 유지, 기존 게임 매출 반등과 모바일 개발사로의 성공적인 전환 기대

목표가가 360,000원(12MF EPS에 Target PER 25배 적용)과 매수 의견을 유지한다. 기존 게임들의 매출 감소로 3분기 실적은 부진할 수 있으나 업데이트 효과로 4분기 매출은 반등이 예상된다. 리니지2 레볼루션 출시 시기가 임박함에 따라 기대감도 지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자체 개발 게임 출시 시기의 전략적인 조정으로 Cannibalization에 따른 Risk가 일부 해소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4A	839	278	230	11,520	44.7	315	15.8	9.5	2.7	18.4	1.9
2015A	838	237	165	7,633	(33.7)	272	27.9	13.7	2.6	10.6	1.3
2016F	956	312	281	13,205	73.0	345	23.1	16.0	3.3	15.0	1.0
2017F	1,179	408	330	15,560	17.8	441	19.6	12.0	3.0	15.7	1.4
2018F	1,259	449	363	17,084	9.8	481	17.9	10.3	2.7	15.3	1.4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6년 10월 6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KTH(036030)

중립(유지)

종가(10/6): 7,910원

## 3Q16 Preview: 성장성 높으나 투자 확대로 수익 부진

## ■ 3분기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22.8% 증가하나 수익성은 부진

3분기 매출은 크게 증가할 것이나 수익성은 낮을 전망이다. 3분기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22.8% 증가한 514억원으로 추정된다. 데이터 홈쇼핑 사업인 T커머스 매출이 70% 늘어 성장을 주도할 것이다. KT그룹의 ICT서비스 플랫폼 사업인 스마트솔루션 매출이 9% 늘고 영화 판권을 확보해 주문형비디오(VOD) 수익을 배분하는 콘텐츠 유통은 4% 증가할 전망이다. 영업이익은 13억원으로 76.9%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5년 3분기에 T커머스 활성화를 위한 광고 선전비가 늘고 인력을 확충해 인건비가 증가한 기저 효과 때문이다. 하지만 투자 확대로 영업이익률이 2.4%에 그쳐 수익성은 부진할 것이다.

## ■ 17년 하반기로 예상되는 연동형 T커머스 성과가 관건

T커머스가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15년 국내 T커머스 거래액 규모는 2,500억원으로 전년대비 216% 늘었으며 16년에도 180% 증가할 전망이다. 국내 10개 T커머스 업체가 사업을 영위하는 가운데 12년 8월 최초로 사업을 시작한 KTH가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판매 대상(커버리지) 유료방송 가입자는 1,900만명으로 확대됐다. KTH의 16년, 17년 T커머스 매출액은 전년대비 각각 66.7%, 58% 증가할 것이다. 현재는 주문형비디오(VOD) 형태 위주로 커머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향후 출시될 연동형 서비스가 실적으로 이어져야 T커머스는 장기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다. KTH는 드라마 등 콘텐츠 출시 6개월 전에 먼저 계약해야 하는 조건 등을 고려하면 17년 하반기에 서비스를 시작할 전망이다. 세계 최초인 연동형(양방향) T커머스가 성공하면 실적은 18년 이후에 의미 있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 ■ T커머스를 위한 투자 확대 지속

T커머스 사업 확충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가 늘어나고 있다. MD(상품기획), PD, 쇼호스트 등 인원 증가로 16년 인건비 및 용역비가 전년대비 31.7% 증가할 전망이다. VOD T커머스는 17년에 흑자전환이 예상되지만 연동형 T커머스 출시 및 사업 확장을 위한 자체 스튜디오 등 추가 투자가 이루어지면 외형 성장은 가속화되나 수익성 개선은 지연될 것이다.

## ■ 중립의견 유지

KTH에 대해 중립의견을 유지한다. T커머스로 성장성은 높으나 투자 확대로 수익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Valuation이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연동형 T커머스의 성과가 장기 성장성 및 수익성을 좌우하는 변수가 될 것이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4A	136	7	12	327	225.1	26	23.4	8.4	1.4	6.3	-
2015A	161	5	7	203	(37.9)	30	44.5	8.0	1.6	3.7	-
2016F	199	5	1	33	(83.8)	34	239.7	6.0	1.4	0.6	-
2017F	249	13	7	207	530.4	49	38.2	4.2	1.4	3.6	-
2018F	303	21	14	386	86.4	63	20.5	3.1	1.3	6.4	-

\*상기 보고서는 2016년 10월 6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김영현(younghkim@truefriend.com) ☎ 02-3276-6186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9/30(금)	10/4(화)	10/5(수)	10/6(목)	10/7(금)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043.63	2,054.86	2,053.00	2,065.30	2,053.80
	등락폭		-25.09	11.23	-1.86	12.3	-11.5
	등락종목	상승(상한)	169(1)	504(4)	347(2)	348(2)	199(2)
		하락(하한)	654(0)	300(0)	446(0)	448(0)	611(0)
	ADR		95.81	100.39	97.26	94.02	86.63
	이격도	10 일	99.90	100.26	100.03	100.49	99.91
		20 일	100.07	100.57	100.43	100.97	100.42
	투자심리		70	70	60	60	50
	거래량	(백만 주)	326	319	292	338	419
	거래대금	(십억 원)	5,739	5,019	4,330	5,358	5,161
코스닥	코스닥지수		681.21	685.88	685.44	684.33	675.9
	등락폭		-8.62	4.67	-0.44	-1.11	-8.43
	등락종목	상승(상한)	283(2)	737(2)	532(3)	542(3)	298(2)
		하락(하한)	821(0)	342(0)	540(0)	533(0)	797(0)
	ADR		98.59	99.28	99.23	99.08	97.88
	이격도	10 일	99.80	100.20	99.98	99.73	98.63
		20 일	100.81	101.34	101.17	100.95	99.73
	투자심리		70	70	60	50	40
	거래량	(백만주)	681	533	587	641	697
	거래대금	(십억원)	3,616	2,880	2,976	3,161	3,452

###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2,730.8	1,579.1	804.0	211.5	98.0	161.1	63.5	10.0	260.0	50.1
	매도		2,534.4	1,540.7	1,040.9	298.0	151.1	214.3	73.5	17.7	286.2	48.1
	순매수		196.4	38.5	-236.9	-86.5	-53.1	-53.3	-10.0	-7.7	-26.3	2.0
	10월 누계		253.7	307.1	-584.4	-556.2	-26.1	-72.7	101.4	-22.3	-8.6	23.6
	16년 누계		-5,038.3	10,088.3	-8,434.7	-2,695.4	681.4	-5,655.6	-897.5	-994.2	1,127.0	3,384.6
코스닥	매수		3,210.5	158.6	67.0	18.7	8.0	16.9	8.2	1.2	14.1	15.7
	매도		3,143.2	182.2	105.7	35.0	9.9	26.3	12.3	1.5	20.8	20.7
	순매수		67.3	-23.6	-38.7	-16.3	-1.9	-9.4	-4.1	-0.3	-6.7	-5.0
	10월 누계		59.0	73.7	-110.9	-34.3	-2.6	-36.3	-14.4	-1.9	-21.4	-21.8
	16년 누계		5,197.9	976.2	-4,251.7	-600.1	-276.1	-1,445.8	-627.6	-148.9	-1,153.4	-1,922.3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유통업	7,531	화학	-20,718
전기가스	4,371	서비스업	-18,762
음식료	2,541	운수장비	-7,108
LG디스플레이	8,769	아모레퍼시픽	-12,311
삼성물산	7,217	LG생활건강	-8,415
CJ제일제당	3,221	현대차	-7,968
현대중공업	2,421	두산인프라코어	-5,834
한국전력	2,371	엔씨소프트	-4,819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보험업	16,035	화학	-27,032
운수장비	10,139	전기전자	-10,639
전기가스	5,190	의약품	-6,799
삼성생명	13,821	LG생활건강	-15,974
현대모비스	10,376	삼성전자	-10,564
삼성물산	7,187	아모레퍼시픽	-8,826
SK이노베이션	6,513	현대차	-5,788
LG디스플레이	6,117	SK하이닉스	-5,607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가스	2,472	유통업	-2,692
증권	680	화학	-2,320
은행	446	건설업	-1,784
한국전력	2,547	대한유화	-1,913
TIGER 레버리지	868	삼성물산	-1,596
LS산전	648	한전KPS	-1,513
KODEX 인버스	597	KODEX 레버리지	-1,502
현대중공업	379	삼성전자	-1,026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기타금융업	6,349	서비스업	-18,878
건설업	2,933	전기전자	-14,844
유통업	1,935	미분류	-11,413
현대중공업	6,802	삼성전자	-11,100
맥쿼리인프라	5,753	현대차	-9,436
삼성물산	5,150	아모레퍼시픽	-7,716
현대모비스	4,609	NAVER	-5,491
롯데케미칼	3,425	LG	-5,167

###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가스	18,181	화학	-76,824
기타금융업	9,248	서비스업	-74,264
유통업	7,162	전기전자	-46,953
삼성물산	27,183	삼성전자	-54,254
LG디스플레이	25,349	아모레퍼시픽	-37,337
현대중공업	16,614	LG생활건강	-34,116
한국전력	15,141	현대차	-29,558
현대모비스	14,465	TIGER 200	-26,337
삼성생명	10,480	두산인프라코어	-16,179
KB금융	8,770	아모레G	-15,904
SK이노베이션	7,866	엔씨소프트	-13,578
TIGER 코스닥150	7,834	NAVER	-12,505
롯데케미칼	7,800	KODEX 200	-10,739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69,362	전기가스	-32,916
서비스업	32,198	통신업	-22,178
유통업	27,701	기타금융업	-19,902
삼성전자	78,951	한국전력	-30,665
TIGER 200	26,092	SK텔레콤	-21,894
삼성물산	23,621	LG화학	-16,143
아모레G	14,924	현대모비스	-10,557
NAVER	9,750	KB금융	-10,130
엔씨소프트	9,105	LG디스플레이	-9,698
현대중공업	4,786	삼성카드	-8,147
KODEX 인버스	4,299	TIGER 코스닥150	-7,794
효성	3,951	SK이노베이션	-7,179
한국항공우주	3,721	두산	-5,373

주: 외국인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반도체	4,592	계약	-4,922
교육	360	도매	-1,865
농업	182	연구,개발	-1,629
AP시스템	1,411	제로투세븐	-1,611
테스	1,019	인트론바이오	-1,072
아이씨디	912	엠지메드	-947
제이스텍	405	케어젠	-901
티씨케이	329	와이지엔터테인먼트	-859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계약	546	반도체	-2,943
오락,문화	433	도매	-1,880
교육	243	음식료,담배	-650
셀트리온	2,358	제로투세븐	-1,125
대원미디어	564	CJ프레시웨이	-930
파트론	497	메디톡스	-810
서울옥션	290	파라다이스	-795
NEW	289	영우디에스피	-626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반도체	444	통신장비	-295
운송장비,부품	389	계약	-169
의료,정밀기기	60	사업지원	-158
알파홀딩스	385	휴맥스	-292
평화정공	273	모두투어	-158
일지테크	155	풍국주정	-103
미래테크놀로지	42	유진기업	-100
태웅	35	바이넥스	-97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반도체	1,215	계약	-2,651
방송서비스	244	종이,목재	-243
운송장비,부품	109	화학	-148
컴투스	565	인트론바이오	-1,316
휴메딕스	564	에스티팜	-830
AP시스템	528	셀트리온	-788
바디텍메드	418	파라다이스	-443
CJ E&M	285	위메이드	-333

###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반도체	624	계약	-13,882
교육	598	도매	-4,227
디지털컨텐츠	560	연구,개발	-4,184
컴투스	1,384	메디톡스	-3,342
파트론	1,362	케어젠	-3,080
티씨케이	1,176	인트론바이오	-2,793
셀트리온	909	제로투세븐	-2,610
대원미디어	906	에스티팜	-1,880
AP시스템	860	CJ프레시웨이	-1,463
테스	818	파라다이스	-1,410
동진씨애클	800	AP위성통신	-1,387
아이씨디	797	원익IPS	-1,295
연우	612	휴온스글로벌	-1,264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반도체	3,750	계약	-6,589
방송서비스	2,341	인터넷	-3,792
연구,개발	1,519	도매	-3,739
AP시스템	2,884	카카오	-2,562
CJ E&M	1,721	셀트리온	-2,341
뉴트리바이오텍	1,305	셀루메드	-1,753
인터플렉스	1,206	메디프론	-1,453
크리스탈	1,148	파라다이스	-1,403
이엔에프테크놀로지	1,030	씨젠	-1,187
인트론바이오	993	컴투스	-998
대화계약	964	에스앤씨엔진그룹	-986
비아트론	923	디에이테크놀로지	-875
코미팜	869	이상네트웍스	-846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 O S P I			
기 관		외 국 인	
유성기업	32 일	비상교육	33 일
KTB투자증권	26 일	현대EP	26 일
한국가스공사	19 일	넥센타이어	24 일
한진중공업홀딩스	16 일	KPX케미칼	22 일
현대증권	14 일	고려제강	19 일
QV 의료 TOP5 ETN	13 일	삼립식품	18 일
KOSEF 200 선물	13 일	송원산업	16 일
동부하이텍	13 일	KB손해보험	14 일

K O S D A Q			
기 관		외 국 인	
이베스트투자증권	20 일	골프존	32 일
모다이노칩	18 일	리노공업	26 일
청담러닝	15 일	엔브이에이치코리아	24 일
엘앤에프	13 일	금화피에스시	20 일
유아이엘	12 일	차이나그레이트	16 일
동진세미켐	12 일	국순당	16 일
씨엠에스에듀	10 일	원일특강	16 일
제이브이엠	10 일	뉴트리바이오텍	15 일

###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 O S P I			
기 관		외 국 인	
삼성물산	157,409	삼성물산	76,705
삼성전자	55,013	TIGER 200	60,673
현대모비스	46,608	엔씨소프트	59,174
삼성생명	44,042	현대차	57,454
현대중공업	43,246	삼성전자	37,884
KODEX 인버스	40,960	LG생활건강	32,386
현대증권	35,813	SK하이닉스	31,161
롯데케미칼	28,713	아모레G	30,536

K O S D A Q			
기 관		외 국 인	
동진세미켐	10,527	카카오	21,989
휴젤	6,542	CJ E&M	17,447
카카오	6,431	AP시스템	15,048
아이씨디	4,768	뉴트리바이오텍	7,691
에스티팜	4,187	NICE평가정보	7,144
연우	3,265	메디투스	6,202
이엔에프테크놀로지	3,008	원익IPS	5,554
SK머티리얼즈	2,835	로엔	4,783

###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 O S P 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유통업	7,162	27,701	34,863
건설업	5,636	2,782	8,418
보험업	6,707	1,001	7,708
삼성물산	27,183	23,621	50,805
현대중공업	16,614	4,786	21,400
삼성생명	10,480	1,216	11,696
현대건설	4,840	3,107	7,948
효성	3,282	3,951	7,232
현대증권	209	2,742	2,952
대우건설	1,972	920	2,892
현대산업	2,099	327	2,426
대림산업	1,683	609	2,292
한국토지신탁	1,413	156	1,569

K O S D A 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반도체	624	3,750	4,374
숙박,음식	9	188	196
육상운송	0	168	168
AP시스템	860	2,884	3,744
CJ E&M	571	1,721	2,292
이엔에프테크놀로지	391	1,030	1,422
티씨케이	1,176	151	1,327
인터플렉스	41	1,206	1,246
테스	818	338	1,156
코미팜	223	869	1,092
대원미디어	906	63	969
원익홀딩스	141	796	937
디엔에프	171	566	737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 O S P I			
기 관		외 국 인	
인지컨트롤스	41 일	KOSEF 200 선물	35 일
대한전선	25 일	극동유화	28 일
현대에이치씨엔	23 일	지투알	24 일
대원화성	22 일	대양금속	22 일
LG전자	19 일	NHN엔터테인먼트	17 일
신라교역	18 일	현대미포조선	17 일
세이브존I&C	16 일	한국가스공사	16 일
텔코웨어	15 일	동부제철	16 일

K O S D A Q			
기 관		외 국 인	
휴맥스홀딩스	42 일	한국캐피탈	40 일
대양전기공업	31 일	삼천리자전거	36 일
월텍스	25 일	하림홀딩스	35 일
NICE평가정보	25 일	서연전자	26 일
라이온캠텍	22 일	엔알케이	20 일
케이비제8호스팩	21 일	삼기오토모티브	18 일
대림제지	21 일	포스코 ICT	15 일
장원테크	13 일	동진씨미캠	11 일

###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 O S P I			
기 관		외 국 인	
한미약품	-224,685	한국전력	-82,308
LG생활건강	-91,015	현대모비스	-53,439
현대차	-81,430	LG화학	-44,189
아모레퍼시픽	-69,110	SK텔레콤	-42,859
TIGER 200	-60,874	삼성카드	-41,542
LG화학	-59,191	한미사이언스	-21,708
NAVER	-42,105	SK이노베이션	-18,637
만도	-40,039	TIGER 코스닥150	-17,401

K O S D A Q			
기 관		외 국 인	
큐리언트	-9,169	휴젤	-20,633
솔브레인	-7,451	셀트리온	-11,331
메디톡스	-7,166	컴투스	-5,638
케어젠	-6,638	셀루메드	-5,356
인트론바이오	-5,985	동진씨미캠	-4,878
바이로메드	-5,320	에스티팜	-4,815
코오롱생명과학	-4,494	홈캐스트	-4,370
레고캠바이오	-4,476	비아트론	-3,467

###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 O S P 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화학	-76,824	-10,353	-87,177
서비스업	-74,264	32,198	-42,066
의약품	-18,540	-9,735	-28,276
아모레퍼시픽	-37,337	-1,187	-38,524
현대차	-29,558	-3,047	-32,605
LG화학	-4,390	-16,143	-20,533
삼성카드	-2,389	-8,147	-10,536
KODEX 레버리지	-5,144	-1,148	-6,293
CJ CGV	-5,998	-17	-6,015
두산	-543	-5,373	-5,916
POSCO	-1,302	-4,125	-5,428
한전KPS	-1,903	-3,401	-5,304
KODEX 코스닥150	-3,416	-626	-4,043
레버리지			

K O S D A 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제약	-13,882	-6,589	-20,472
도매	-4,227	-3,739	-7,965
기계, 장비	-3,037	-2,389	-5,426
케어젠	-3,080	-131	-3,211
파라다이스	-1,410	-1,403	-2,814
카카오	-242	-2,562	-2,804
셀루메드	-2	-1,753	-1,755
디에이테크놀로지	-781	-875	-1,655
메디프론	-174	-1,453	-1,627
AP위성통신	-1,387	-2	-1,389
씨젠	-93	-1,187	-1,279
영우디에스피	-1,053	-189	-1,243
바이로메드	-893	-282	-1,175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 O S P 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27	45,810	
KB금융	458	17,552	
삼성물산	61	9,734	
한미약품	16	7,446	
LG화학	31	7,232	
LG생활건강	8	7,212	
엔씨소프트	23	7,083	
SK하이닉스	153	6,536	

K O S D A Q			
종 목	주 수	금 액	
파라다이스	174	2,825	
컴투스	27	2,740	
셀트리온	18	1,942	
카카오	16	1,354	
바이로메드	8	927	
마кро젠	24	873	
비아트론	31	814	
메디투스	2	749	

주:상기표의수치는2거래일전기준임

### ◆ 대차잔고상위종목

(체결기준:천주,백만원)

K O S P I		
종목	주수	금액
삼성전자	4,720	7,980,896
NAVER	1,582	1,362,485
SK하이닉스	30,581	1,301,209
현대중공업	7,733	1,128,951
KB금융	27,767	1,075,977
현대차	6,171	857,725
LG생활건강	885	833,460
KT&G	6,960	831,736

K O S D A Q		
종목	주수	금액
셀트리온	23,161	2,455,100
카카오	11,861	1,011,771
바이로메드	2,385	263,321
로엔	3,328	246,610
컴투스	2,373	234,462
메디투스	416	187,910
파라다이스	9,554	154,781
코미팜	3,729	148,211

주:상기표의수치는2거래일전기준임

### ◆ 대차잔고5일간누적순증/감상위업종및종목

(체결기준:천주)

K O S P I			
순증		순감	
미분류	2,838	건설업	-4,817
은행	2,663	화학	-2,585
기타금융업	2,260	유통업	-2,126
KB금융	2,900	대우건설	-5,112
우리은행	2,328	신성솔라에너지	-3,712
동부증권	2,198	삼성중공업	-1,646
SK하이닉스	2,115	우리종금	-1,533
TIGER 유동자금	1,980	SK증권	-1,103
두산인프라코어	1,945	BNK금융지주	-1,044
대한전선	1,799	SK네트웍스	-880
기아차	1,732	대우조선해양	-661
영진약품	1,660	한솔홈데코	-592
KODEX 200	1,396	한국토지신탁	-590

K O S D A Q			
순증		순감	
제약	3,068	IT부품	-1,973
연구,개발	407	반도체	-1,207
방송서비스	269	도매	-841
CMG제약	2,404	위지트	-640
셀루메드	1,132	아가방컴퍼니	-543
셀트리온	705	카카오	-532
파라다이스	476	서부T&D	-526
크리스탈	468	리노스	-469
휘닉스소재	342	키이스트	-380
아이오케이	314	에스코넥	-377
이스트아시아홀딩스	280	에코프로	-375
씨씨에스	274	케이사인	-311
세종텔레콤	257	AP시스템	-304

주:상기표의수치는2거래일전기준임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거래주체별매매동향

(단위:십억)

구분	연간누계	월간누계	5일간누계	9/30(금)	10/4(화)	10/5(수)	10/6(목)	10/7(금)
외국인	10,088.3	307.1	151.2	-155.8	179.3	-2.6	91.9	38.5
기관계	-8,434.7	-584.4	-823.3	-238.9	-90.1	-110.2	-147.3	-236.9
(투신)	-5,655.6	-72.7	-209.2	-136.5	-38.4	1.7	17.3	-53.3
(연기금)	1,470.1	-16.4	-35.1	-18.8	8.1	10.5	-2.0	-33.0
(은행)	-994.2	-22.3	-32.8	-10.5	-14.3	3.8	-4.0	-7.7
(보험)	681.4	-26.1	-73.4	-47.3	17.3	-14.0	23.7	-53.1
개인	-5,038.3	253.7	631.7	377.9	-89.4	99.2	47.5	196.4
기타	3,384.6	23.6	40.4	16.7	0.2	13.6	7.8	2.0

주:KOSDAQ제외

### ◆증시자금동향

(단위:p,십억원,%)

구분	2013	2014	2015	9/29(목)	9/30(금)	10/4(화)	10/5(수)	10/6(목)
KOSPI	2,011.3	1,915.6	1,961.3	2,068.7	2,043.6	2,054.9	2,053.0	2,065.3
고객예탁금	14,211.8	15,842.5	22,695.6	22,411.1	21,934.0	22,418.4	22,747.3	24,286.6
(증감액)	-3,802.5	1,630.7	6,853.1	197.1	-477.1	484.4	328.9	1,539.3
(회전율)	29.9	34.0	28.8	35.7	42.7	35.2	32.1	35.1
실질예탁금증감	-10,123.5	-2,003.0	7,687.7	-88.8	-362.3	221.6	742.3	1,396.8
신용잔고(KOSPI)	2,300.6	2,542.3	3,035.6	3,374.3	3,367.1	3,371.7	3,355.0	3,351.4
신용잔고(KOSDAQ)	1,893.2	2,537.5	3,491.2	4,334.9	4,343.0	4,354.2	4,337.5	4,329.6
미수금	92.9	117.6	151.0	136.5	115.5	118.9	148.8	155.8

주1:실질예탁금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증분)/고객예탁금회전율=(KOSPI,KOSDAQ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상기표의수치는2거래일전까지제공,KOSCOM

### ◆국내수익증권유출입동향

(단위:십억원)

구분	설정잔액	연간누계	월간누계	9/28(수)	9/29(목)	9/30(금)	10/4(화)	10/5(수)
전체주식형	73,237	-7,653	-74	12	-69	-57	-85	11
(ex.ETF)		-6,759	-12	-35	-53	-52	-5	-6
국내주식형	55,835	-7,334	-67	5	-65	-67	-94	26
(ex.ETF)		-6,351	-5	-42	-49	-61	-14	9
해외주식형	17,402	-320	-7	7	-4	9	8	-15
(ex.ETF)		-408	-7	7	-4	9	8	-15
주식혼합형	8,135	-88	-6	-14	7	13	-1	-5
채권혼합형	28,612	-2,147	-79	-79	-5	-41	-106	27
채권형	110,569	21,540	-408	-42	430	103	-132	-276
MMF	109,934	15,447	1,970	-404	-5,184	-4,241	150	1,820

주:상기표의수치는2거래일전까지제공,금융투자협회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주요이머징마켓외국인매매동향

(단위:백만달러)

국가	연간누계	월간누계	5일간누계	9/30(금)	10/4(화)	10/5(수)	10/6(목)	10/7(금)
한국	8,889	275	275	-142	161	-2	82	34
대만	13,237	241	241	-245	137	73	-57	-
인도	7,700	191	191	-28	76	98	-	-
인도네시아	2,638	15	15	30	-14	-3	-6	-
태국	3,838	53	53	-16	-14	31	-14	-
남아공	-6,546	64	64	-58	86	-111	45	-
필리핀	743	-8	-8	80	4	-7	-7	-

자료: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금리, 환율및원자재가격

(단위:%, 원, 엔, p, 달러)

구분	2015년말	9/30(금)	10/4(화)	10/5(수)	10/6(목)	10/7(금)
회사채(AA-)	2.11	1.66	1.69	1.72	1.73	1.73
회사채(BBB-)	8.06	7.74	7.77	7.80	7.81	7.82
국고채(3년)	1.66	1.24	1.27	1.31	1.32	1.32
국고채(5년)	1.81	1.25	1.28	1.32	1.34	1.34
국고채(10년)	2.08	1.39	1.45	1.51	1.53	1.53
미국채(10년)	2.27	1.62	1.68	1.70	1.73	-
일본채(10년)	0.27	0.05	0.06	0.05	0.05	-
원/달러	1,172.50	1,101.30	1,107.80	1,113.70	1,112.20	1,115.50
원/100엔	972.63	1,087.70	1,078.15	1,076.66	1,070.14	1,073.84
엔/달러	120.55	101.25	102.75	103.44	103.93	103.88
달러/유로	1.09	1.12	1.11	1.11	1.11	1.11
DDR31Gb(1333MHz)	1.00	1.15	1.15	1.15	1.15	-
DDR32Gb(1333MHz)	1.13	1.15	1.15	1.16	1.17	-
NANDFlash16Gb(MLC)	1.46	1.67	1.71	1.71	1.73	-
CRB지수	176.81	187.03	187.30	188.78	188.54	-
LME지수	2,217.9	2,460.4	2,444.6	2,439.1	2,431.8	-
BDI	478	864	860	869	915	-
유가(WTI,달러/배럴)	37.04	48.81	48.69	49.83	50.44	-
금(달러/온스)	1,060.00	1,313.30	1,283.30	1,269.40	1,254.50	-

자료: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3	4	5	6	7
美> 9월 ISM 제조업지수 (51.5, 51.0, 49.4) 유럽> 9월 마켓 유로존 제조업 PMI (52.6, 52.6, 52.6) 日> 9월 닛케이 PMI 제조업 (50.4, 50.4, 50.3) 3분기 대형 전체 산업 Capex (6.3%, 6.5%, 6.2%)		韓> 9월 CPI YoY (1.2%, 0.7%, 0.4%) 美> 8월 내구재 주문 (0.0%, 0.1%, 0.0%) 8월 제조업수주 (-0.2%, 0.2%, 1.9%) 8월 무역수지(십억 달러) (-39.2, -43, -39.5)		美> 9월 비농업부분고용지수 변동 (n/a, 175k, 151k) 9월 실업률 (n/a, 4.9%, 4.9%) 8월 도매 재고 MoM (n/a, n/a, -0.1%)
10	11	12	13	14
中> 통화공급 M2 YoY (n/a, 11.6%, 11.4%)	日> 8월 경상수지(십억 엔) (n/a, n/a, 1,938.2)	韓> 9월 실업률 (n/a, n/a, 3.8%) 日> 8월 핵심기계수주 QoQ (n/a, n/a, 4.9%) 유럽> 8월 산업생산 MoM (n/a, n/a, -1.1%)	韓> <b>금융통화위원회</b> <b>(n/a, n/a, 1.25%)</b>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n/a, n/a, n/a) 9월 FOMC 회의록 발표	美> 소매판매 추정 QoQ (n/a, 0.4%, -0.3%) PPI 최종수요 MoM (n/a, 0.2%, 0.0%) <b>연준 옐런 연설(15일)</b> 中> 9월 CPI YoY (n/a, n/a, 1.3%) 9월 PPI YoY (n/a, n/a, -0.8%) 日> 9월 PPI YoY (n/a, n/a, -3.6%) 실적발표> 美 제이피모간체이스 웰스파고 씨티그룹
17	18	19	20	21
美> 9월 광공업생산 MoM (n/a, 0.1%, -0.4%) 日> 8월 광공업생산 MoM (n/a, n/a, 1.5%) 유럽> 9월 CPI YoY (n/a, n/a, 0.4%)	美> 9월 CPI MoM (n/a, 0.3%, 0.2%)	美> 9월 주택착공건수(천건) (n/a, 1170, 1,142) 中> 3분기 GDP YoY (n/a, 6.7%, 6.7%) 9월 광공업생산 YoY (n/a, 6.4%, 6.3%) 日> 8월 전체산업 활동지수 MoM (n/a, n/a, 0.3%)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n/a, n/a, n/a) 9월 기준주택매매(백만) (n/a, 5.40, 5.33) 9월 선행지수 (n/a, 0.2%, -0.2%) 연준 Beige Book 발표 유럽> <b>ECB 단기수신금리</b>	유럽> 10월 소비자가대지수 (n/a, n/a, -8.2)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 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